

“환황해 중심지로”... ‘충남의 힘’으로 혁신도시 길 열었다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남 혁신도시 법적 근거 마련
 “대한민국 균형발전 큰 그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본격 돌입
 20개 공공기관 유치 탄력
 도내 대학생에 우선 채용 보장
 道,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 이전 수용방안도 마련



혁신도시 근거 균특법 통과됐다 지난 6일 국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된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충청권 여야 정치인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맹철영 friend2@korea.kr

마침내 220만 충남도민의 결집된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꽃을 피웠다.
 (관련기사 3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통과로 충남의 혁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앞으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해졌다.
 도는 이와 함께 120여 개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혁신도시 2기 사업’을 겨냥해 20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 혁신도시 추진일지

- 2018년 1월 양승조 국회의원,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안 발의
- 8월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공조 합의
- 10월 충남·대전혁신도시 지정관련 국회토론회
- 2019년 2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대전·충남 혁신도시 촉구 건의문
- 4월 혁신도시지정 촉구 서명운동 전개
- 9월 충청권 여야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 2020년 2월 (20일) 균특법 국회산업통상자원위 통과
- 3월 (4일) 균특법 국회법사위 통과 (6일) 균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도는 지난해 TF팀을 만들어 124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유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78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법안 통과로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가 실현되면 충남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이 이전은 그동안 혜택을 보지 못했던 지역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채용도 가능해져 인재채용기회가 넓어진다.
 또한 정주인구 증가 ▲민간 기업 유

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선권 부여 ▲이전기관 직원 자녀들에 대한 정원 외 입학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수용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균특법 개정을 요구해온 것은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라며 “내포신도시 혁신도시가 환황해 권 중심을 꿈꾸는 충남의 새로운 도약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건설정책과041-635-4629 /도정신문팀

지역화폐 3213억 확대...코로나19 ‘숨통’

당초 계획보다 407% 대폭 늘려 등 새로운 유통구조에도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율 10%로 상향 소비 진작 특히, 병·의원, 약국, 주유소, 학원 등 일상생활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에 대한 가맹을 독려할 예정이다.
 부정유통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무엇보다 지역화폐 구매와 이용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서도 읍면동까지 판매점을 확대한다.
 충남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지역화폐 3213억 원을 확대 발행한다. 당초 발행계획 633억 원보다 407% 증액된 액수다.
 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할인 기간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화폐는 오는 6월 말까지 10% 할인 된 가격에 판매되며, 개인당 구매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9만 원을 지역화폐로 사용 시 해당 가맹점에서는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도는 향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과 카드형 지역화폐를 15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모바일쇼핑 등 새로운 유통구조에도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판매된 상품권이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다시 은행으로 환전되는 유통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상품권 판매가 대부분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골목상권 매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기업과041-635-3444

충남도민의 집단지성이 혁신도시 길 열었다

도정 톨아보기

위기 속 빛난 220만 도민 결집 충남 해양신산업 촉진제로

고진감래. 학수고대해온 균특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원안 통과하는 대미를 장식했다. 이로써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지정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충남은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으로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가 편입돼 인구 9만 6000여명을 빼앗겼다. 그리고 세종시 관할이라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불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불가에 도시 성장 정체라는 3중 불이익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균특법 통과 결실은 충남에 활기를 불어넣을 나비효과가 되리라는 기대감이 크다.
 충남 혁신도시와, 그 혁신도시 지위 획득으로 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역동적인 성장 모델이 마련되게 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유입, 기업체 동반 이전, 도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일자리 보파리를 안기게 된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충남도는 혁신도시를 발판으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비박척을 그리고 있다. 이미 충남도는 해양치유와 해양레저, 해양바이오라는 해양신산업의 로드맵을 설계하고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혁신도시가 충남의 미래산업을 해양신산업으로 이끄는 촉진제로 작용할게 틀림없다. 그동안 충남도는 혁신도시의 길을 만들기 위해 부단하게 달려왔다. 2017년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했고, 여러 차례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의원들을 끈기 있게 설득했고, 충북도와 세종시까지 가서시켜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혁신도시 유치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균특법 결실은 지역민 집단지성과 충남도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명 받을만하다. 혁신도시가 환황해권 중심을 꿈꾸는 충남의 새로운 도약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미래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찬선 chansun21@korea.kr

“코로나19 극복, 공동체 정신 발휘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 당부 “마스크 부족, 공동체 정신 필요”

충남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동참과 마스크 부족 문제에 맞선 공동체 정신 발휘를 당부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코로나19 대응 추진 상황과 도민 협조 요청사항을 발표했다.
 도는 확진자 수가 소강세에 있으나, 지금 이 시기는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도는 “가능한 모임과 외출 등을 자제해 주시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 및 외출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특히 닫힌 공간에

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나 행사에 유의하자”고 밝혔다.
 마스크 부족 현상에 대응해서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단시간에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정부의 마스크 사용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숙지해 마스크 부족에 대응하고, 감염 차단을 위해 함께 힘 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종교단체와 학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남방역대책본부041-635-4915

75세 이상 섬 주민 여객운임 무료화 '박차'

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상반기 내 운영시스템 구축
을 7월 1일 시행 목표

충남도가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운임 무료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행·재정적 제반 사항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운임 무료화는 육지의 생활 여건과 의료·문화 서비스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서 지역 어르신의 이동권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도내 연륙되지 않은 21개 도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도서민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총 591명이다.

도는 타 지자체 등 선례가 없는 이번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고, 제도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그 결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민의 주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임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을 인정받아 승인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 중 한국해운조합과 여객선 전산발권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까지 시·군 및 선사 등과 함께 사업

관련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준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대부분 버스가 다니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육지의 생활 여건과 균등한 조건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제도를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시내·농어촌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시행하는 등 어르신을 위한 교통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해운항만과041-635-2794

도정만평



설인호

“안전 대진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도, “서산 폭발사고 원인규명, 인적 물적 피해보상 최선”

충남도는 최근 발생한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시설 안전 대진단을 통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지역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도는 이날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지역민, 공

장관계자 등을 만나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4일 오전 3시경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납사(나프타) 분해 센터(NCC)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연면적 12만여㎡ 공장 내부와 시설물이 탔고, 근로자와 주민 등 3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충남도는 인재로 벌어진 사고인지, 대비하고 조치했다더라면 막을 수 있었



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인명·물적 피해의 철저한 조사와 충분한 보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민간참여 보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보관실041-635-2214

도청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구내식당 한 방향 앉아 식사

충남도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구내식당 한 방향 앉아 식사' 운동을 전개한다.

도는 9일부터 도청 내 식당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방향으로만 앉아 식사하도록 안내하고, 배식 시에도 앞사람과 간격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구내식당 이용시간을 실·국별로 구분해 동시간대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분산하고, 식사 전 손소독제



충남도청 직원들이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으로 한 방향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사용도 권장했다.

도 관계자는 “도청 내에서 동시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식사 공간의 특성상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직원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코로나19 확산을 미리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달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구내식당 휴무제를 시행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인사과041-635-3542

군산 코앞 외딴 섬, '충남 유부도'

충남이 품은 섬 이야기

⑥서천 유부도

희귀새가 날아드는 철새 낙원

광활한 갯벌에 꼬막 대합 천지

검은머리물떼새 등 산란처

서천,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유부도는 드넓은 모래밭과 개펄, 거기서 주민들이 경운기를 타고 나가 꼬막을 잡는 모습이 활력을 불어넣는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7반 유부도 마을. 해안선 길이 4km, 넓이 0.77㎢. 산 높이가 28m, 23가구 40여명의 주민이 사는 금강 하구의 작은 섬이다. 주민등록상에는 모두 70여명이지만 20여명은 장항과 군산에 집을 두고 살면서 조개를 채취할 때 섬으로 들어온다. 서천군에 속하지만, 전북 군산 쪽에 더 가깝다. 장항 항에서 배(선외기)로 20분 거리, 군산에선 5분 거리다. '외딴 섬'으로 불리는 까닭은 물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섬에 가게도 없고 물을 오가는 정기 배편도 없다. 주민들은 '선외기'라 부르는 작은 동력선을 타고 육지를 오간다. 먹을 물은 주로 물에서 배로 실어다 먹고, 세탁용이나 허드렛물은 빗물을 받아왔다가 쓴다.

유부도가 보여주는 풍경의 으뜸은 드넓은 모래밭과 개펄이다. 어민들은 이 넓은 들판을 경운기로 오가며 해산물을 채취한다. 꼬막과 대합, 죽합이다. 지금 유부도와 이어진 북쪽 돌섬(풀섬) 앞

개펄에선 주민들의 꼬막 채취가 한창이다.

돌섬 위에서 바라보는, 군산항 쪽으로 넘어가는 해넘이는 화려하면서도 쓸쓸하다. 개펄의 자작 자작한 물 위로 황금빛 불기둥이 세워지고 마침내 붉디붉은 노을의 지붕이 완성되면, 철새들이 떼지어 날아와 밤을 지낼 곳을 찾는다.

해양수산부는 유부도 일대의 갯벌 16.5㎢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있다.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은 '검은머리물떼새'로 유명한 유부도 인근 갯벌(3㎢)과 평소 갯벌체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소리, 장포리에 걸친 펄과 모래가 혼합된 갯벌(13.5㎢) 등이다. 현재 유부도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추진 중이다.

특히 금강하구에 위치한 유부도 갯벌은 다양한 조류의 서식지로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검은머리물떼새의 30% 이상이 월동하는 중요한 서식·산란지로 널리 알려져 해마다 많은 관광객과 조류학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유부도는 충남 서천에 속한 섬이지만 지리상으로 전북 군산과 가깝기 때문에 생활권 또한 군산에 속해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유부도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여천도, 연도, 개야도, 죽도 섬들은 행정상으로 전북 군산에 속하는데, 한참 남쪽에 있는 유부도는 충남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분쟁을 이루고 있는 섬들은 일제 암흑기인 1914년, 일본인들이 행정 구역을 개편하면서 자신들의 편대로 한 탓이다.

/이재연 목포과학대 섬해양연구원



유부도 주민들이 어패류를 채취하고 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대사 12명 위촉

가수 배일호 배우 박해미

국악 이지원, 아나운서 김병찬 등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최홍목 계룡시장, 김진호 민간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한 홍보대사는 ▲배우 박해미, 민경진 ▲가수 배일호, 정다한, 최연화 ▲국악 이지원 ▲아나운서 김병찬 ▲운동선수 임다솔, 양예빈 ▲유튜버 박은하 ▲마술사 이훈 ▲치어리딩 이나라(점프엔젤스) 등 12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진호 민간위원장은 “올해 엑스포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더욱 뜻 깊다”면서 “홍보대사들이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엑스포 붐을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엑스포 개최지인 최홍목 계룡시장은 “3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수도의 특성을 잘 살린 엑스포가 홍보대사를 통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17일간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042-840-3922

행정·여론·정치권 한마음...“220만 저력 보여줬다”

균특법 개정안 통과 과정과 의미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충남도의 전방위적 노력, 100만인 서명운동 등으로 하나 된 충남도민의 염원, 지역정치권의 대승적 협업을 통해 충청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18조의 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개정안은 충청권을 지역구로 하는 박병계, 홍문표, 김종민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9월, 10월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통과했다. 이어 이듬해인 지난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거쳐 지난 4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청신호를 밝혔다.

법안 처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당초 5일로 예정된 제376회국회 임시회 본회의가 순연되긴 했지만 이튿날 속개했고, 160여개의 안건 중 71번째로 올라 재석 163명, 157명 찬성으로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됐다.

충남혁신도시 지정 논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①내포신도시 전경 ②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③100만인 서명 달성 후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④기차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 동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③100만인 서명 달성 후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④기차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 동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8년 최초 개정안 발의 후 지역발전 핵심어젠다로 급부상 충남지방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범도민 100만인 서명 운동 등 행정력·정치권·도민 협업 결과

충청권 지역발전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른 혁신도시가 본격적인 추진동력을 얻기 시작한 것은 민선 7기 충남도정에 이르러서다. 지난 2018년 7월 혁신도시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이래 도는 수차례의 국회 방문, 국회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협약,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약 등을 통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지난해 2월에는 충청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국가균형위, 중앙부처에 전달했고 3월에는 충남도지사와 11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혁신도시지정을 위한 공동입장문을 채택했다. 이어 4월에는 국회 입법조사관과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해 법 개정을 독려하는 한편 양승조 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 중앙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7월에는 충남도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충남도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곳곳에서 시작되며 범도민운동으로 확산됐다. 이를 기반으로 도는 지난해 8월 13일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추

진위원회에는 도내 15개 시·군, 유관기관, 단체, 대학 등 각계 대표자들이 대거 참여,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충남혁신도시 유치를 홍보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추진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도는 100만인 서명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3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7개월 간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총 101만61명의 도민이 참여하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지난 2월 말 기준 충남도의 전체 인구는 212만995명. 전체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도민이 서명운동에 한 것이다. 충남도 정책과 관련해 10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도민들의 이 같은 염원이 담긴 100만인 서명부를 청와대, 국회, 국가균형위 등 중앙부처에 전달해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알렸다.

하나 된 도민의 염원,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 충남도의 적극적인 행정력 세 가지는 역대 최단기간 법안 통과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다. 2019년 10월 30일 법안발의 후 2020년 3월 6일 본회의 통과 등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정 사상 처음으로 도민 100만명이 참여하는 서명을 달성하면서 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수시로 정부부처를 찾아가 설득하는 등 적극행정이 빛을 발한 결과라는 평가다.

/김혜동 khdf1226@korea.kr

“내포에 20여 공공기관 유치 목표”

혁신도시 지정 절차와 기대효과

국가균형발전위에 지정 신청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수증대 기대 지역인재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균특법 통과로 충남도는 곧바로 혁신도시 지정 관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는 성장이 흥성·예산에 걸쳐 조성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경우 도시발전에 있어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안 개정으로 충남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됐다. 이 곳에는 150여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돼 경제적·재정적인 혜택을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10개 혁신도시의 정주민구가 20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모두 1527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도 모두 4228억 원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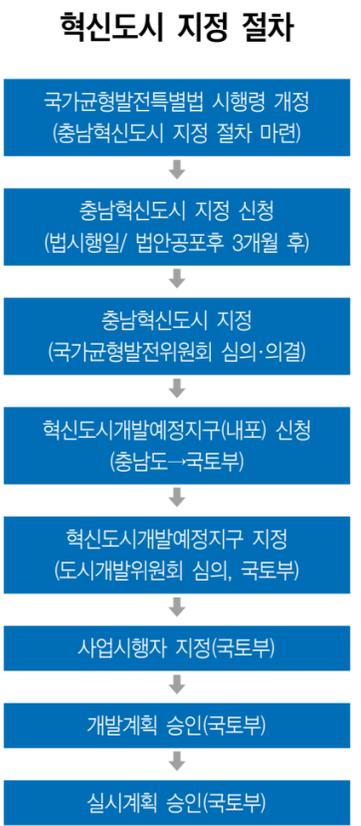
특히 이번 균특법 개정안은 앞선 혁신도시법 개정과 맞물려 청년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역대학가에서도 기대감이 크다.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혁신도시법 제정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도 ‘지역인재채용의무’를 적용할 수 있고 이번 균특법 개정으로 향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당연히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게 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

대할 수 있어서다. 앞으로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있는 2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충남도는 균특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20여개 공공기관을 물밑 접촉하며 충남도 이전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현재까지 20여 곳의 공공기관이 충남도로의 이전을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공공기관들 중 특히 해양에너지 산업과 농업 등 충남도정의 방화과 미래성장동력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유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혁신도시 지정 대상지인 흥성·예산 내포신도시의 경우 부지 마련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어 속도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무엇보다 이전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에 법인세 면제 및 지방세 5년 간 감면,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타 혁신도시와의 기업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우선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가장 큰 관문인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후속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장 이뤄져야 할 것은 균특법 시행령 개정이다. 도는 오는 빠르면 6월 중 균특법 개정안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오는 7~8월께 국토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충남도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검토한 뒤 혁신도시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균형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 지정을



승인하면 공공기관 유치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본격적인 유치 작업은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2기 사업과 연계돼 있어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기업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 청년 일자리 증가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하다”며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곳으로 이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동 khdf1226@korea.kr

코로나19 덮은 희소식 ‘반색’

각계 축하 성명 줄이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마중물이 될 균특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각계의 축하성명이 쏟아졌다. 충남의 자존심을 걸고 혁신도시 유치 100만 명 서명운동에 동참했던 도민들도 늦은 감이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데 대해 서로 축하하고 격려했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인 유병국 의장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충남 혁신도시 지정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한 남은 절차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선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그 동안 균특법 통과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법안이 통과돼 코로나19 사태로 침잠해 있는 지역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줬다”며 “이번 법안 통과가 단지 내포신도시인 흥성과 예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충남 전체에 유익하다는 틀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석환 흥성군수도 같은 날 “10만 군민과 출향인 그리고 지역국회의원 등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문

재인 대통령·양승조 충남도지사의 공약사항이자 지난 군수 선거 시에 약속드린 내포신도시의 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충남혁신도시 조기 지정을 위해 충남도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충청지역 정치권의 협력, 충남도,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대전시민의 참여가 만들어 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대위는 “이제 첫발을 내딛었다. 수도권에 있는 200여개의 공공기관을 빠르게 이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시즌2를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들이 국정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해 지방분권 개헌, 국민주권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대학들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종서 대전·세종·충남 지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은 “공공기관 인재 채용 때 불이익을 받았던 우리 지역 대학생에게 취업의 기회를 크게 열어줄 것”이라며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토굴에서 숙성시킨 국내산 새우젓의 감칠맛 '비교불가'

소상공인의 희망, 백년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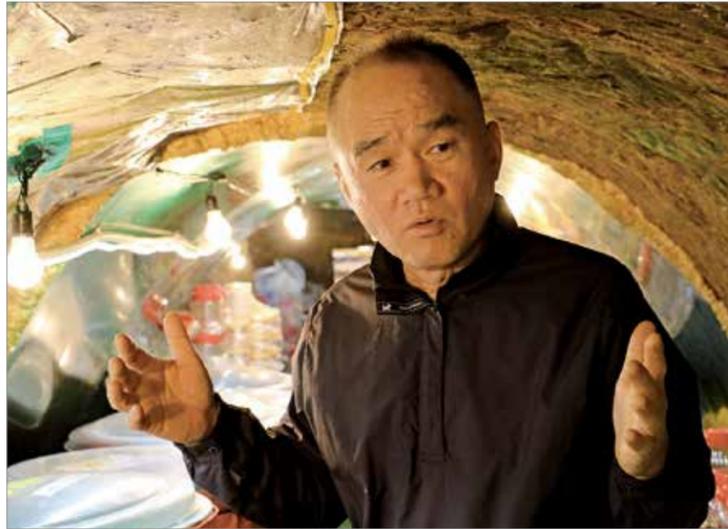
- 흥성 '신광상회'

3대째 광천 웅암리에서 성업 처음으로 '토굴' 사용해 주목

흥성군 광천읍 소재지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웅암리. 읍소재지에 인접한 작은 마을이지만 광천의 대표적 특산물인 토굴새우젓의 주산지로 전국적 유명세를 얻은 곳이다. 허니(61) 신광상회 사장은 광천새우젓에 토굴을 결합한 주인공으로 부모님에 이어 2대째 신광상회를 운영하며 웅암리 토굴새우젓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신광상회는 웅암리 흥망성쇠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서해 바닷길의 종착지였던 웅암포구는 고려시대 때부터 새우젓 산지로 유명했다. 서해안 10여개 섬의 배들이 잡은 새우를 팔기 위해 모여들면서 웅암포구는 늘 북적였고 5일장이 섰던 광천시장은 크게 번성했다.

근대기까지 웅암리와 광천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새우젓 시장이 열렸지만 1992년 포구 입구에 대형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웅암리 일대 상권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뱃길이 완전히 끊기면서 새우젓 배는 물론 각지 상인들조차 찾지 않게 됐기 때



허니 사장이 토굴안에서 숙성되고 있는 새우젓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이다. 신광상회는 새우젓산지로 명맥이 끊긴 웅암리에 1993년 첫 번째 문을 연 토굴새우젓 판매점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아버지의 새우젓 가게를 돕던 허니 사장은 일반 새우젓에 토굴을 결합시켰다. 예부터 광천 웅암리에서 새우젓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토굴에 보관하던 풍습을 떠올려 '토굴새우젓'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것이다.

허니 사장은 "광천에서는 새우젓을 토굴에서 숙성시켰는데 마을 사람들끼리 '굴새우젓'으로 불렀었다"며 "토굴새우젓으로 처음 명명하면서

향토적 특색이 강해졌고 이후 다른 가게에서도 토굴새우젓을 사용하면 '토굴새우젓'이 광천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고 말했다. 이후 허니 사장은 토굴에 전기 설비를 도입하고 새우젓 판매 용기도 규격용기로 바꾸는 등 토굴새우젓을 대중상품화하는데 앞장섰다.

토굴새우젓을 판매한지 4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웅암리의 풍경도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다. 방조제가 들어선 이후 새우젓 가게 하나 없이 삭막했던 마을에는 현재 100여개의 토굴새우젓 가게가 성업 중이다. 가게들은 저마다의 토굴에서 각



토굴안에서 숙성되고 있는 새우젓

자의 노하우로 새우젓을 숙성시키는데 김정철이면 대형버스로 찾아오는 단체손님들도 인산인해를 이룬다.

연중 13~15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토굴에서 숙성된 새우젓은 일반 새우젓보다 감칠맛이 뛰어나 인기가 좋다. 광천에서 생산되는 새우젓은 연간 1200톤, 1등급 육젓의 전국 판매량이 90%, 2등급 육젓은 30%를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입산에 밀려 국내산 새우젓이 위기를 겪었을 때도 광천토굴새우젓만은 명성을 지켰다. 허니 사장은 "1970년대 중국산 새우젓이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됐는데 광천에서만

은 중국산 새우젓을 받지 않고 국내산 새우를 발효시켜 판매하는 것만을 고집했다"며 "지금 광천토굴새우젓이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는 것은 정직한 판매를 바탕으로 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광상회는 최근 세대교체를 준비 중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 판매가 급증하고 새우젓 판매 과정이 분업화되는 등 보다 많은 일손이 필요해지면서 둘째 아들 허락기(30) 씨와 셋째 아들 허성진(28) 씨가 가게 운영을 적극 돕고 있다. 가업을 잇기로 결심한 두 자녀 덕에 허니 사장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졌다.

신광상회 허니 사장은 새우젓을 '인생의 동반자'라고 표현했다. 새우젓을 인연으로 아내 고명순(56) 씨를 만났고 자녀 넷을 낳아 기를 수 있었다. 수많은 단골들과 40여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오고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생겼다. 허니 사장은 "3대째 토굴새우젓 가게를 운영하는데 있어 자존심과 긍지로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켰다"며 "한번 우리집 새우젓을 맛 보고 일년 뒤 다시 찾아오는 손님들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 건강한 지역의 먹거리가 문화가 되는 시대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의 4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동 khd1226@korea.kr

경제 불균형 해소 '상생협력 자문단' 출범

경제 자문위원 17명 위촉

전문가 중심 글로벌 경제 대응

정부 주도 탈피, 충남형 모델로

충남도가 경제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단을 꾸렸다.

충남도는 지난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충남도민 상생협력 조정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경제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민상생협력 자문단은 정부 주도 동반성장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촉진과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한 자문기구다.

도는 이날 경제상생 자문 기능을 수행할 1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상생협력 실태와 과제 발표 및 경제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조태용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원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태동과 변천' 설명을, 홍지승 산업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실태와 과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공공(정부) 주도의 하향식 모델보다는 충남의 산업 및 사회적 구조, 지리적 특성에 맞는 '충남형 모델'을 발굴, 도내 시·

군과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향후 자문단 운영을 수시로 열어 올해 12월 말까지 '충남 도민상생협력 종합계획'을 수립,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에 구성된 도민상생협력 자문단은 도의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대중소기업 및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 협력하는 모델을 발굴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산학민관 협력으로 발전해 실질적 성과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과041-635-2214

지역성 담은 콘텐츠로 전통문화 꽃피운다

도, 콘텐츠 발굴 공모 등

전통식품·의복·섬유·공예·건축

전통문화산업 육성 방안 추진

충남도가 지역 전통문화산업의 고른 발전 및 새로운 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전통문화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전통문화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는 도내 여러 전통문화산업 분야의 콘텐츠를 공개 모집해 개발·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전통식품 ▲전통공예

▲전통건축 ▲전통의복·섬유 등 4개다. 지원 분야는 ▲상표 정체성(BI) 개발, 디자인 권리화, 패키지·포장지·쇼핑백 제작 등 디자인 고도화 ▲매체 광고, 전시·마켓 참가, 스튜디오 촬영, 리플릿 제작 등 홍보 마케팅 ▲재료비, 제작비 등 제작 지원이다.

이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응모는 도내 전통문화산업 종사자 및 관련학과 전공자를 비롯한 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지원 서류와 심사 제품을 전자우편(grace@ctia.kr)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041-590-0924)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작품 심사를 거쳐 지원 동기와 적합성, 우수성, 지역성, 전

락 등을 평가해 지원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작품에는 건당 10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전통문화 콘텐츠 고도화의 일환으로 백제명주 패키지 디자인 개선과 제작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 우수 콘텐츠를 대상으로 박람회 참가 및 영상 제작을 통한 홍보 지원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잘 알려지지 않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역의 고유성과 특색이 담긴 문화 콘텐츠를 창출해 기획 단계부터 개발·출시까지 지원하고, 우수 콘텐츠로 육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정책과041-635-3823

지식재산 '스타트업' 지원

신생 기업에 최대 1000만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우)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공동 협력사업으로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은 지식재산,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등 필요한 IP(지식재산권) 서비스와 서비스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미만, 매출 100억원 미만인 스타트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IP 기반 스타트업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각 바우처 금액의 자기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를 포인트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소형과 중형 두 종류로 소형 바우처는 500만원 이내(자부담 20%), 중형 바우처는 1000만원 이내(자부담 30%)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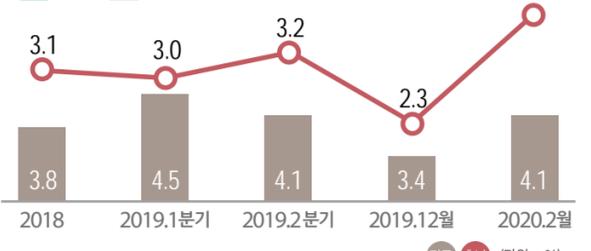
●충남창조센터 041-536-7878

충청남도 2월 일자리 상황판

고용률 -1.6%p (전년 동월 대비)



실업률 1.1%p (전년 동월 대비)



전국 충남 (단위: %)



‘웰-에이징’ 산업 구축...지역사회 활성화 토대 마련

(건강한 노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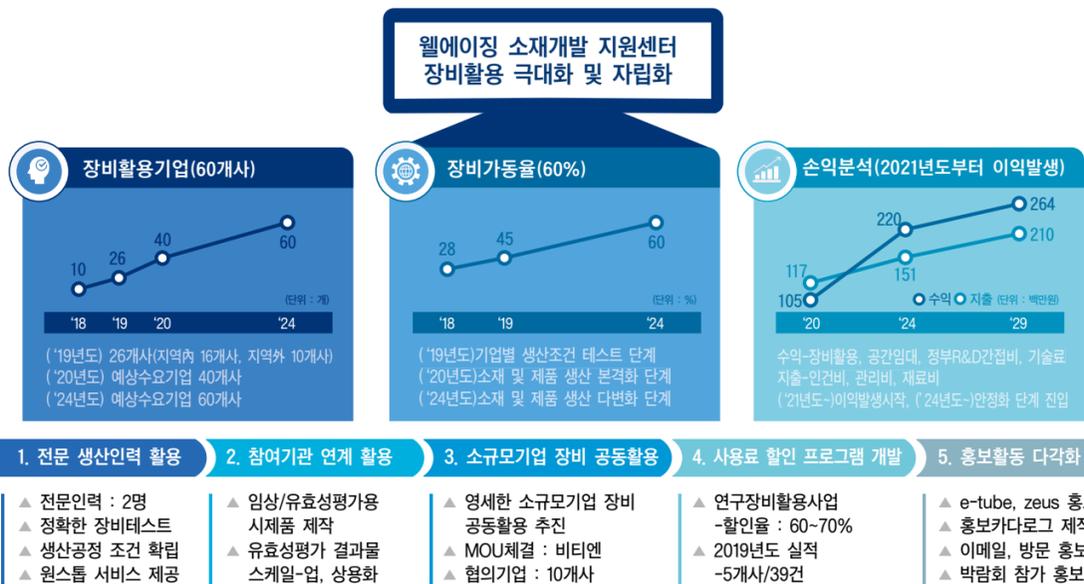
4년간 中企 72개사 지원으로
매출 67%, 고용 163명 효과

충남도가 건강한 노화 즉, ‘웰-에이징’(Well-aging)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토대를 마련했다.

도는 웰-에이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웰-에이징 소재개발 지원센터’를 구축, 관련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개발을 목표로, 총 60억 원(국비 40억, 지방비 15억, 민자 5억)이 투입됐다.

세부사업은 ▲웰-에이징 소재개발 생산시스템 구축 ▲바이오 진단마커 개발 ▲경증질환, 항산화 및 신경변화 유효성평가 지원 ▲국내외 규격 및 인증획득 지원 ▲국내외 네트워킹 및 전



시회 참가 지원 ▲실무형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등이다. 도는 2015년부터 4년간 웰-에이징 관련 기업 72곳에 지원한 결과, 기업 매출신장이 6.7% 증가했다. 수출은 6.8% 증가했고, 직접고용 163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실제 한국신약(논산시 소재)은 시제품제작 및 유효성평가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후두복합추출이 무릎관절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꽃피영농조합법인(청양군 소재)은 지역농산물인 맥문동의 항산화, 항염, 피부건강에 대한 효과를 확인했고, 맥문동진액 제품개발에 성공했다.

화인에프티(공주시 소재)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베트남 G사에 수출했고, 국내업체 M사와 OEM 계약을 체결했다.

도 관계자는 “웰-에이징 소재개발 지원센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관광·부티 등과 연계한 융·복합 웰-에이징 산업을 창출해 충남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웰-에이징 소재개발 지원센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관광·부티 등과 연계한 융·복합 웰-에이징 산업을 창출해 충남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산업육성과 041-635-3932

도립대, 전국 유일 6년 연속 ‘신입생 100% 충원’

학령인구감소에도 ‘순항’
전국 평균 대비 등록금 40%
공무원 844명 배출 등 경쟁력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가 학령인구 급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했다.

도립대는 202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정원 내 모집인원 456명 전원이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신입생 전원이 등록함에 따라 충남도립대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6년 연속 등록률 100%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대학 등록 현황에 따르면 도립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모집 정원 543명 전원이 등록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모집정원 531명 모두 등록했다.

3년제 개편이 있었던 지난해에도 456명 모집에 전원 등록이라는 기록을 올렸다. 전국 도립대학교 가운데 6년 연속 등록률 100% 기록한 것은 충남도립대가 유일하다.

특히, 학령인구가 5만여명이 넘게 감소하는 올해에도 이 같은 성과를 기록한 배경에는 교육복지 실현과 꾸준히 경쟁력을 높여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충남도립대학교는 충청남도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으로 전국 대학 평균 등록금 대비 40% 수준의 등록금을 유지

하고 장학금은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또 지난해 3년제 학과 개편과 대학 중단기발전 전략 추진, 대학혁신사업 선정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왔으며, 개교 이래 공무원 844명 배출 및 대기업 단체 입사 등 다방면에 걸쳐 혁신적인 행보를 보였다.

허재영 총장은 “올해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기임에도 충남도민의 성원과 대학 구성원의 노력으로 등록률 100%라는 결실을 일궈낼 수 있었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 심화 등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나, 앞으로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립대 041-635-5893

주환바이오셀 구강청결제 1만 갑 쾌척

도, 의료취약계층에 분배

주환바이오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구강청결제 1만 갑(16상자)을 쾌척했다.

충남도는 9일 주환바이오셀이 기탁한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의료취약계층에 분배한다고 밝혔다.

천안에 위치한 주환바이오셀은 기

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고,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영위하는 천연물 기능성 소재를 연구하는 기업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후원 물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역민들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며 기부 활동을 실천한 기업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회복지과041-635-4254

소규모 건설 공사비 현실화 위한 설계기준 마련

불공정관행 공사비 개선
마을 안길 포장, 상수도 복구 등

충남도는 공공건설의 적정공사비 산출과 불합리한 소규모공사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설계기준은 도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사위원회, 건설협회 등 실무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만큼 공정경제,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을안길포장, 상수도 복구, 도심지 협소공간 등에서 이뤄지는 소규모공사의 적정공사비 보장으로 지역건설경기의 활력 제고뿐만 아니라, 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선 사항은 ▲1일 미만 시공량의 별도 계약 기준 수립 등 소규모 공사 설계 17개 항목 신설·개정(기존 대비 최대 20% 상승) ▲기존 설계기준 항목별 32개, 중기초조 상각비 12개 오류 사항 수정(기존 대비 평균 2.57% 단가 상승) ▲2020년도 표준품셈 개정

29개 사항 적용(기존 대비 평균 3.93% 단가 상승) ▲기존 일위대가 착오·오류 단가산출 32건 수정(기존 대비 평균 7.93% 상승)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올해부터 설계기준 적용 후 의견 수렴 및 보완대책 수립 등 확대적용을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안정화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정책과 041-635-4624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 접수

공익직불제 시행 의무등록

충남도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내달 17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융자금 등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변경등록 추진 주요 내용은 기존 통

합신청 접수를 ‘선 경영정보 변경’, ‘후 직불사업 신청’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직불신청 대상은 15만여 농가로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하면 된다.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변경등록도 가능하다.

‘공익직불제’ 기본 방향은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되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 개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 의무 강화 등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변경등록 기간이 내달 17일까지 연장됐다”며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농관원을 통해 해당기간 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반드시 변경해야만 불이익과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원예과041-635-2525

원로예술인 생애사 남긴다

문화재단 채록 추진 공모

충남문화재단은 ‘2020년도 원로예술인 생애사 연구(채록부문) 공모’를 실시한다.

‘원로예술인 생애사 연구’는 충청남도 문화예술사 발전에 기여한 원로 예술인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충남 문화예술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재단은 3명의 원로예술인을 지난달 선정함에 따라 원로예술인구술채록을

진행할 채록기관 및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내 구술채록 관련 기관(단체)이며 구술자 1명 이상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3월 2일(월)부터 3월 22일(일)까지 국가문화지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문화재단 041-630-2900





“도민이 주인 되는 참여예산제 운영”

도, 전담인력 확충 등 참여 유도 예산학교 민간수행기관 공개모집

충남도는 도 홈페이지와 충남 도민 참여예산제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도민참여예산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이번 운영계획은 올해 추진하는 도민참여예산제의 세부내용과 인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확대 운영 ▲도민참여예산제 제도개선(조례 개정)과 도민참여예산제기구의 효율적 운영 ▲내년도 도민참여예산 사업 공개모집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도민 설문조사 등이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와 충남 도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재룡 도 공동체정책과장은 “도민 참여예산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와 예산교육 강화’를 첫 번째 운영 방침으로 정했다”며 “올해를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참여예산제 운영활성화를 위해 도민참여증진팀을 신설,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예산학교 운영 민간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공동체정책과041-635-3478

맥문동 다수확, 3월 생육에 달렸다

잎이 무성하면 웃거름 주면 안돼 청양·부여가 전국 77% 재배

도 농기원은 맥문동의 월동 후 알뿌리 생육을 위해서는 웃거름을 주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기원에 따르면 전국 맥문동 생산량의 77%를 재배하는 청양·부여 지역의 생육 상태를 조사한 결과 ▲총음 50% ▲보통 40% ▲불량 10%로 나타났다. 알뿌리 발생량도 예년보다 18~27% 많았다. 4월 중순부터 수확하는 맥문동은 알뿌리가 커지는 3월부터 생육 관리에 따라 수량 차이가 크다. 이 시기에는 강우 시 배수를 철저히

해 습해를 방지하고, 잎이 무성해지면 알뿌리가 커지는 데 불리하므로 웃거름을 주지 말아야 한다.

도 농업기술원 구기자연연구소 박영춘 연구사는 “최근 맥문동 가격이 회복된 만큼 습해를 막고, 고근 비대를 촉진해 수량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041-635-6385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맥문동 생육을 살피고 있다.

도서관서 노인·아동용 마스크 제작

자원봉사자, 마스크 6500개 제작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충남도서관이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마스크 제작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부터 충남도서관 3층 메이커스페이스에서 필터 교체용 면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 이번 마스크 제작은 공적 마스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 대상자와 가정위탁아동 및 세대주 등 3200여

명에게 배부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마스크는 흥성군 자원봉사자와 적십자사 예산군지구협의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도 자원봉사센터가 마련한 재료와 충남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에 설치된 재봉틀을 활용해 제작하고 있다. 도와 도 자원봉사센터는 마스크 5000매를 추가 제작해 취약계층에 배부할 계획이다.

●공동체정책과041-635-3476

충남 11개 마을에 집수리·안전시설

316억 지원해 마을 환경개선 천안 북면, 보령 오천면 등

충남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도내 11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마을은 지난해보다 6개 늘어

총 11개 마을로, ▲천안시 북면 ▲보령시 오천면 ▲논산시 내동 ▲부여군 구룡면 ▲청양군 청양읍·장평면 ▲홍성군 장곡면·서부면 ▲예산군 예산읍·대술면 ▲태안군 고남면 등이다. 선정 마을은 총 31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3~4년간 안전·방재시설을 확충하고, 생활기반시설과 집수리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마을주차장 조

성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 담장 정비 ▲도시가스 공급 ▲재래식 화장실 개선 ▲시시티브이(CCTV)·가로등 설치 ▲소화전 설치 ▲공동 텃밭 조성 ▲쉼터 및 휴게 공간 조성 ▲공동생활홈 ▲소방도로 개설 ▲마을회관 새 단장 등이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후보지 발굴부터 평가까지 시·군 및 지역주민들과 상시 소통하며 용역비 지원, 자문단 구성, 사업계획서 평가, 발표자료 사전 보완 등 단계별 준비를 도왔다.

●균형발전담당관041-635-2132

지방세 이의신청 무료 지원

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제 시행

충남도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도는 2일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권익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

청 등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국세와 달리 해당 제도가 없는 지방세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했다. 도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 9명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세무대리인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를 대

상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불복 업무를 지원한다. 세무서비스는 지방세 과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영세납세자라 하더라도 고액·상습 체납자로 출국 금지 대상자이거나 명단 공개 대상자인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정과 041-635-3637

조국에 ‘문화’를 바친 윤백남

충남의 근현대 문인들

⑤논산 윤백남

극예술연구회 조직, 신극운동 펼쳐 우리나라 최초의 시나리오 작가 최초 극영화 ‘월하의 맹서’ 제작 장편역사소설 대도전 등 발표도

황산벌을 가로지르는 논산천이 금강과 만나는 너른 평야지대, 성동면 화정리에는 소설가이자 극작가, 영화인 윤백남의 자취가 남아 있다. 윤교중이 본명이지만 백남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그는 1888년 기호유학의 거봉 윤증가문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한문을 배웠던 그는 부친을 따라 상경, 1901년 경성학당 중학부에서 신학문을 공부했다. 열여섯 살 때 일본으로 유학, 와세다실업학교를 거쳐 관비유학생으로 와세다대학 정경과에 진학, 문학과 예술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된다. 귀국한 후, 조중환과 함께 극단 ‘문수성’을 창단해 연극운동에 매진했다. 1913년 매일신보 편집국장을 거쳐 반도문예사를 세우고 월간잡지 ‘예원’을 발간했다. 또 ‘불여귀’, ‘청춘’ 등 순수창작극을 초연했는가 하면, 유지진, 이하윤 등과 ‘극예술연구회’를 조직, 신극운동을 펼치며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았다.



1923년 직접 쓰고 감독한 극영화 ‘월하의 맹서’는 우리나라 최초 극영화로 기록되면서 한국영화사에 빼놓을 수 없는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백남프로덕션’을 창립해 ‘심청전’, ‘개척지’ 등 영화를 만들며 일본인 중심의 영화 산업에 한국영화인들을 위한 세계를 구축해 가는 한편, 장편역사소설 「대도전」과 「해조곡」, 「흑두건」 등을 발표해 소설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광복 후, 조선영화건설본부 위원장을 비롯, 서라벌예대 초대 학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하다 1954년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 논산시 광석면 윤씨 선산에 잠들었다. 일제강점기 문화를 꽃피우겠다는 일념으로 집필했던 작품들, 한편의 희곡이 찰나의 장면이 짧은 대사 한마디가 식민지 조국에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시나리오 작가, 나라를 잃었지만 혼란을 지키려 했던 윤백남, 그는 우리 근대문학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소설가이자 희곡작가이다. 그런 가하면 연극인, 영화인, 언론인이었고, 방송인, 평론가, 배우, 성우 역할까지 한 천재적 인물이었다. 그가 우리 충남의 문인이자 정말 자랑스럽다.



이정우 충남문인협회 회장

6개 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노후관 교체 등 1297억 원 투입

충남도는 12일 공주시 등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0 신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부여·서천·태안·홍성·예산 등 도내 5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 신규 대상 지역은 천안·공주·보령·서산·당진·청양 등 6개 시·군이므로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97억 7700만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관로 교체 ▲누수 탐사·복구 ▲블록시스템 구축 등이며 지역 우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도와 6개 시·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케이-워터(K-water)와 일괄 협약을 체결했으며 환경부와 협의해 지역 내 사업 대상지를 확정했다. 도는 행·재정적 지원과 협의 조정 등을 총괄하고, 케이-워터는 효율적 물 공급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 및 노후관 정비 사업을 수행하며 6개 시·군은 사업 전담을 지원한다.

●물관리정책과041-635-4479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전국 2위

충남문화재단, 문화복지 매진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현식)이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급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이 지난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시도별 문화누리카드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충남은 이용액 46억원으로, 95%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문화

누리카드 이용률은 매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에 이어 2019년 이용률 전국 2위를 차지했다. 2019년 전국 평균은 92%이며 세종이 95.62%, 충남 94.84%, 대구 94.22% 순으로 집계돼,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이 우수한 수준임을 입증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별(6세 이상)로 9만원을 지원해 문화, 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충남문화재단 041-630-2900



내포에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한다

김좌진·이동녕·유관순
윤봉길·한용운 조형물 설치
보훈문화축제 콘텐츠로 연계



내포 흥예공원에 조성될 독립운동가 거리 조감도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흥예공원에 조성하는 '독립운동가의 거리' 공사가 착수했다.

독립운동가의 거리 사업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독립운동가 조형물을 세우는 등 독립운동 관련 일지·기록 등을 형상화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는 역사 명소로 조성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아 총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독립운동가의 거리에 설치하는 조형물의 주인공은 도내 대표 독립운동가인 김좌진 장군,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이동녕 선생, 한용운 선생 등 총 5인으로 충청남도 인물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각 조형물은 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상징적 공간인 태극의 길 위에 세운다.

태극의 길은 적색과 청색의 보도블록을 활용해 태극 문양을 표현하며 중심에는 유관순 열사 조형물, 사방의 건·곤·감·이 위치에는 김좌진 장군·이동녕 선생·윤봉길 의사·한용운 선생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조형물의 디자인은 충남대 역사학과 김상기 교수 등 역사인물 전문가 5명의 자문·고증을 거쳐 설계했으며 현재 제작 중이다.

도는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조경작업과 보도블록 및 조형물·조명 등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독립운동가의 거리는 앞으로 보훈공원·보훈관·항일독립운동여성상 등과 함께 보훈문화축제의 주요 콘텐츠로 연계·활용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를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역사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과 041-635-4253

병해충 정보 제공...농가 피해 줄인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법 등 발표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연 9회 병해충 발생 상황과 발생 전망, 방제 요령 등을 제공한다.

이번 발생 정보에는 예년 정보를 토대로 과수화상병과 월동 해충, 오이·딸기·토마토 등 시설재배 작물을 중심으로 피해 증상과 방제 요령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천안지역에서 지속 발

생 중인 과수화상병 방제 요령으로 청결한 과원 관리와 전정가위 등 작업 도구 개별 사용 및 알코올 소독을 안내했다.

또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사과는 신초 발아 전에, 배는 개화 전에 등록약제로 방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꼬마배나무이, 응애류, 진딧물류, 뽕나무 각지벌레 등 월동 해충과 시설 작물에

서 발생하는 노균병·흰가루병·잿빛곰팡이병 및 마늘 잎집썩음병 등에 대한 예방·방제 요령도 제공했다.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는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 자료실(<https://cnnongupchungnam.go.kr/maincs>)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도 농업기술원 김경태 지도사는 "올해는 따뜻한 겨울이 지속돼 병해충 발생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 정보를 수집해 반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원 041-635-6167

나싱갱이를 켈까 매옹갱이를 켈까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35)

꽃대를 하얗게 풀어낸 나싱갱이
푸른줄기 세운 매옹갱이

보령청양엔 매옹개가 자라고
공주천안의 매옹갱이가 피어

코로나가 휘날리는 세상의 들판에 봄이 왔다. 입매개를 두르고 호미질을 하는 충남농업기술원의 한 구성. 지난 가을 추수한 콩밭에는 냉이들이 꽃대를 세운다.

아내와 나는 두둑과 골 사이에 피어난 봄을 뜯는다. 아내는 냉이를 캐고 나는 나싱갱이를 캔다. 말이 그렇다. 사람마다 다르다. 누구는 표준어를 쓰고 누군가 충청말을 쓴다. 어릴 적부터 충청말에 익숙한 나는 나싱갱이를 캔다. 젊은 시절 한때 서울에 살았던 아내는 냉이를 캔다.

푸른 봄 햇살이 바꾸기에 가득할 무렵, 저쪽에서 50대 중년이 다가온다.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란다. 그는 다가와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다. 나는 나싱갱이를 캔다고 대답한다. 아, 나싱개를 캐는군요. 그가 쓰는 말은 나싱개다.

콩밭에는 세 갈래의 냉이가 가득했다. 잎새에 털이 가득한 저 냉이 이름은 무엇일까? 털이 없이 뽕뽕하고 질푸른 빛깔을 키우는 저 냉이 이름은 또 무엇일까? 다들 흔히 보아온 풀인데 나는 아직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집에 돌아오니 친구들 카톡방에 나물 사진이 올라와 있다. 어느 시인의 봄 바꾸니, 쑥 한 줌과 돌나물 한줌이 냉이와 함께 오종종 모여 앉았다. 시인은 바꾸니 밑에 푸른 쪽지를 남겼다.

‘나싱갱이 비스무리허구 뿌리가 맴구 잎새귀가 톱날처럼 날카로운’ 매옹갱이 ‘라구 있었네티, 관련정보 주시면 후사할게유.’

아하, 매옹갱이!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다. 어릴 적 밭둑에 자라난 매옹갱이를 꺾어 씹던 기억이 엇그제다.

4월이면 나싱갱이는 꽃대 위에 하얀 웃음을 풀어냈다. 그 흐드러진 하얀 웃음 사이로 매옹갱이는 꽃대공 대신 젓가락 길이만큼씩 푸른 줄

기를 세웠다. 아이들은 그것을 손톱으로 꺾다. 톱치처럼 뽕뽕뽕한 잎새를 떨구고 입에 넣었다. 매콤한 향이 입 안 가득 고였다. 톱 쏘는 매운 맛 때문에 붙여진 이름 매옹갱이. 그것은 여름날의 애오추 맛과는 다른 봄맛이었다. 찹레순 같은 시원한 봄이 아니고 성처럼 신 봄도 아니었다.

시인의 쪽지 아래 주르르 댓글이 달렸다. 거기 보령청양의 매옹개가 자라나고, 공주천안의 매옹갱이가 피어났다.

그리고 대전에서 매옹갱이의 표준어가 풀썩 튀어왔다. 정 없이 생소한 콩다닥냉이. 인터넷을 검색하면 매옹갱이는 안 보이고 콩다닥냉이만 온 들판 푸르게 펼쳐진다. 나는 웬지 서글픈 농업기술원 묵은 콩밭을 찾는다. 다시 찾은 거기엔 냉이도 콩다닥냉이도 없다. 대신 꽃대를 하얗게 풀어내는 나싱갱이가 있다. 푸른 줄기를 세워가는 매옹개, 매옹갱이들이 나를 반긴다.



이명재
시인·충청언어연구소

심폐소생술로 80대 어르신 구조

이성미 의용소방대원
충남도지사 표창



통해 80대 어르신의 생명을 구조했다.

이 대원의 빠른 대처로 요구되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이성미 흥성읍 여성의용소방대원이 10일 80대 노인을 구조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 대원은 지난달 심폐소생술을

●화재대책과041-635-5661

‘49초에 1건’ 꼴 119신고 접수

도 소방본부, 작년 64만 건
구급신고 12만 건으로 최다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49초에 1건’ 꼴로 119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소방본부는 8일 지난해 119신고 접수 분석결과를 분석·발표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총 64만 4107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2018년 62만 947건보다 3.7% 증가한 수치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구급신고가 12만 49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조신고 3만 3667건 ▲화재신고 2만 7928건 ▲의료상담 3만 8684건 ▲기타 41만 8855건 등이다.

화재·구조·구급 신고를 시간단위로 환산해 보면 화재신고는 18분에 1건, 구조신고는 15분에 1건, 구급신고는 4분에 1건씩 접수됐다.

월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달은 8월(7만 2215건)과 9

월(7만 930건)로 나타났다. 이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요일별로는 토요일, 시간대별로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가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관할 소방서별로는 아산소방서 6만 4412건, 천안서북소방서 6만 957건, 천안동남소방서 5만 4565건, 서산소방서 4만 2325건, 당진소방서 3만 8883건 순으로 집계됐다.

도 상황요원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신고건수는 1만 3419건으로, 전국 평균(1만 1803건)보다 13.7% 높다.

특히 도민 100명당 평균 신고건수는 30건으로 제주도(31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관을 기다리는 도민에겐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만이 최선이다”라며 “상황요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가장 빠르게 달려가는 119가 되겠다”고 말했다.

●종합방재센터041-635-5661

천안역지하상가 창업최대 500만원 지원

천안 창조장사꾼 모집

만19세 이상 청년 도전자

천안시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맹창호)은 ‘창조장사꾼 프로젝트’ 참여자 공모기간을 4주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창조장사꾼은 천안역지하상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00만원 이내의 창업지원금과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선정자(팀)는 창업교육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분야는 핸드메이드 등 창작자가 직접 생산해 현장판매가 가능한 문화산업 분야 도·소매업 등이다. 지

원요건은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신생창업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신청은 이번 기간연장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가능하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wctia.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공모연장은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의 편의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애로사항 등을 고려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1-620-6400

도 체육회, 체육진흥기금 평가 최우수

지도자 처우개선 등 동기

충청남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시한 2019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평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1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2위를 차지했다.

시도 체육분야의 평가는 정부의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등이 매년 실시된다.

평가사업 중 1위는 일반,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96.15점), 2위는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94.20

점)와 유소년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90.55점)으로 3개 사업 모두 타시도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금지원사업 우수평가는 전국 1위 수준의 처우개선을 통한 지도자 현장활동 동기부여와 대회 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해 차기대회 개최에 반영하는 등 섬세한 준비로 이뤄낸 성과로 풀이된다.

충청남도체육회 김덕호 회장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활체육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체육회041-635-0124

백제의 도공, 이마리 도자기 시조되다

충청의 미술인

③이삼평(李參平)

이삼평은 공주 반포 출신으로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도공이다. 일본 규슈로 끌려가 아리타 자기의 모태를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만든 도자기는 지명을 따 아리타도자기로 이름 붙여졌으며 12km 떨어진 이마리(伊萬里) 항을 통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반출항의 이름을 따 '이마리 도자기'로 불리기도 한다.

아리타 도자기의 명성은 점차 일본을 넘어 유럽에까지 알려져 수출되기에 이르렀고 더욱이 독일의 마이센 지역으로 들어가 유럽 최초의 도자기가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를 인연으로 아리타시와 마이센시는 현재 자매도시가 되어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한다.

그는 사가현 아리타지역에서 도자기의 시조라는 의미에서 도조로 받들어지고 있다.

아리타의 도산 신사는 이삼평을 제



신사에 모셔진 도조 이삼평비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비록 전쟁 통해 이국에 끌려간 포로 신세였지만 천업인 도자기로 일가를 이루어 일본 도자기의 시조가 되었고 신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이삼평이 조선의 도공으로 평생을 살았다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고향인 공주 땅 어딘가에 묻혔을 텐데 일본에 포로로 잡혀옴으로써 그의 이름이 일본과 유럽에까지 알려지고 신사



이삼평 신사에 모셔진 이삼평 도자상

에게까지 모셔지게 되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메이지(明治) 이후의 아리타·이마리 도자기는 기계화의 근대화된 기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크고 작은 백수십 개의 가마가 설치되어 최대의 도향으로서 번영을 누리고 있다.

도조 이삼평의 기념비는 일본 아리타마을을 모두 내려다볼 수 있는 도산신사(陶山神社)의 뒷산에 위치해 있다. 도조 이삼평이 아리타도업의 장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의 고향인 공주시에서는 반포면 학봉리 계룡산 자락에 이삼평도자문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임재광(미술평론가, 공주대교수)

“휴관중 책 빌려드립니다”

충남도서관, 임시휴관 도립

10일부터 대출 서비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휴관 중인 충남도서관이 2주 이상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한시적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충남도서관은 지난 10일부터 휴관 종료 시까지 1층 정문 창구를 통해 한시적으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출 가능 시간은 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대출 도서명과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를 기재해 충남도서관 임시 계정(chungnamlibrary01.naver.com)으로 전자우편(e-mail)을 보내면 된다.

충남도서관은 대출이 가능할 경우 알람 문자를 발송하며 신청인은 문자를 받은 뒤 24시간 이내에 회원증을 지참해 1층 정문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충남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출 도서를 비롯한 모든 도서에 대해 자외선 열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도서 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안내창구(041-635-8000)에 문의하면 된다.

나병준 충남도서관장은 “유치원을 비롯한 모든 학교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집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독서문화도 향유할 수 있도록 알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서관041-635-8065

자연과 인간, 만물의 어우러짐

충남의 산수 - 유교의 산수관

①요산요수(樂山樂水)

산수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 눈을 돌리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산이고 물이다.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산과 강, 내와 바다가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이 사는 곳에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기에 사람이 모여 살게 된 것이다. 유달리 산이 많은 지형 때문일까? 우리의 선조들은 풍경이 빼어난 산수를 찾아 노래하며 즐겼다. 그들에게 산수는 단순한 삶의 터전을 넘어선 의미를 가진다.

유학자라면 거의 누구나 상징적인 산이나 물이 있기 마련이다. 공자에게 태산(泰山)과 기수(沂水)가 있다면, 주자에게는 무이산(武夷山)과 구곡계(九曲溪)가 있다.

우리나라 유학자들의 산수 사랑은 각별하다. 복잡한 도회지를 멀리하고 산림에 은거하며 학문을 닦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산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물이 있었고, 선비들은 그 산과 물의 이름을 자신의 호로 삼고 그와 일체감을 느끼고자 했다. 퇴계(退溪)나 청량산인(淸涼山人)이라는 자호를 쓴 이황, 울곡(栗谷)·석담(石潭)을 자호로 삼은 이이가 대표적으로 그렇다. 산수를 노래한 시문학, 산수화가 주류를 이루는 우리의 예술문화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산과 물을 좋아하는 것일까? ‘논어’에는 “인한 사람들은 산을 좋아하고, 지적인 사람들은 물을 좋아한다(樂山樂水)”라는 말이 보인다. 이 말을 한 공자가 의취

는 알 수 없고 후대의 해석은 분분하지만, 정감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이렇다.

산은 생명의 보고다. 산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수많은 생명들을 만날 수 있다. 제각기 모습과 삶의 방식을 달리한 다양한 생명체들은 마치 한 몸인 듯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산이야말로 생명의 역동성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물 또한 아름답고 신비로우며 그곳 역시 생명의 역동성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물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저 그 바깥에 경계를 짓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거나, 교통과 교역, 고기잡이 등을 통해 혜택을 얻을 뿐, 그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마음이 따뜻한 인자들은 산에서 생명과의 하나됨을 느끼고자 했고, 재주가 뛰어난 지자들은 물에서 삶의 지혜와 혜택을 얻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유학은 인(仁)과 지(知)의 중용적 조화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유학자들이 산수를 사랑한 것은 그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닐 것이다.

그 자연과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자기성장과 삶의 조화를 위한 무언가를 배우며, 삶의 실질적 혜택을 얻고자 했던 유학자들의 마음가짐도 산수 사랑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특히 자연과 인간, 그리고 만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산수화를 좋아했다.

/이치역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홈페이지 www.clean.go.kr

공익신고자 보호 더욱 강해졌습니다

- ✓ 보호 : 비밀보장, 신분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 ✓ 보상 : 내부공익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신고대상 : 6대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 ✓ 건강 : 불량식품 제조 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 ✓ 안전 :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 ✓ 환경 :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 ✓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유출, 허위·과장광고
-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불법하도급
-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채용광고, 방위산업기술 불법사용



죽산 산수화(윤여갑 가림, 충남역사박물관 소장)



대를 이은 박팽년의 충절

내포칼럼



백 승 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그는 충청도 회덕현 흥농촌 왕대별(현 대전시 동구 가양동) 출신이다. 명군 세종은 일찍이 박팽년의 능력을 알아보았다. 세종 16년 문과에 급제하자 왕은 그를 집현전 학사로 뽑아 측근에 두었다. 박팽년은 성격이 침착하고 과묵하였으며, 수선에 힘써 선비들의 모범이었다.

그 당시 집현전에는 문장가가 많았다. 신숙주를 비롯해 최항, 이석형, 성삼문, 유성원, 하위지 등이 특히 유명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박팽년을 제일이라며 '집대성'이라고 불렀다. 박팽년은 학문도 으뜸이요, 문장도 필법도 가장 빼어났다는 말이었다. 세종도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면 박팽년의 붓을 빌릴 때가 많았다.

한 번은 이름난 학자가 명나라 사신이 되어 조선에 왔다. 예겸(倪謙)이었다. 그는 박팽년과 성삼문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는 박팽년의 재주에 깜짝 놀라, "조선이 바로 소중화(小中華)"라고 하였다. 즉 나라는 작아도 조선이 유교 문명의 중심이라는 뜻이었다. 중종 때 참찬관 이세인이 어전에서 증언한 말이다.(실록, 중종 3년 10월 22일)

청렴하기로도 박팽년만 한 이가 없었다. 그는 대어섯 마지막의 발을 서울 근교 광주에 소유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벗이 그를 조용히 나무랐다. '옛사람은 봉록만으로 살림을 하였다. 그대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발을 가지고 있는가?' 박팽년은 부끄러워하며 광주의 발을 곧 처분하

였다. 개혁정치가 조광조는 이 이야기를 중종에게 전하며 박팽년의 청렴을 기렸다.(실록, 중종 13년 3월 25일)

그러나 운명은 박팽년에게 가혹하였다. 세종과 문종이 잇따라 승하하자 어린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다. 박팽년과 성삼문 등 여섯 신하는 충절을 지키느라 목숨을 바쳤다. 그러나 한번 빛나간 역사의 흐름은 바로잡히지 않았다.

훗날 인조의 어전에서 경연관 한주가 아뢰었다. 세조께서는 박팽년 등을 옮겨 여기셨으나 시운이 위태로워 부득이 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일찍이 측근에게 말씀하시기를, '박팽년 등은 지금도 역적이라고 하지만 후대의 눈으로는 엄연한 충신이라'고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후세가 사육신의 충절을 잊을까 봐 세조는 이렇게 말한 거였다.(육신전)

박팽년 일가가 화를 당했을 때 그의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다. 관가에서는 출산을 기다려 만약 아들이 태어나면 곧 죽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박씨 집안의 여종 한 사람도 임신 중이었다. 그가 박팽년의 며느리에게 몰래 이런 말을 하였다. "마님께서 딸을 낳으시면 불행 중 다행이옵니다. 그러나 만약 마님과 제가 모두 아들을 낳더라도 제 아들로 도련님 대신하여 죽게 하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를 낳고 보니 마님은 아들을, 여종은 딸을 낳았다. 그들은 자식을 맞바꾸었다. 여종의 집은 경상도 대구라서 박팽년의 손자 박비(朴斐)는 그곳에서 자랐다. 장성한 박비는 자신이 박팽년의 손자임을 조정에 신고하고, 조정을 속인 죄를 빌었다. 뜻밖의 소식에 접한 선조는 매우 기뻐하며 죄를 용서하였다. 얼마 후 조정에서는 박팽년의 증손 박충후를 태안 군수로 삼기도 하였다.(실록, 선조 36년 4월 21일) 이리하여 사육신의 으뜸인 박팽년의 후손만은 길이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하늘도 무심하지 않다며 다행으로 여겼다.



박팽년 초상화

충청도 회덕현 왕대별 출신으로 세종대왕 집현전 학사로 충애 충절 지키다 사육신으로 숙청

노비의 충심으로 손자 목숨 구해 증손 박충후는 태안군수로 부임 대를 이은 충절·청렴 본보기 돼야

청년을 너무 오냐오냐한다고요?

힘내라, 시골청년



정 명 진
(취지역론토크발전소 대표)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너무 오냐오냐하는 분위기가 있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배가 던진 말이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 편한 형처럼 지내는 선배의 입에서 '꼰대' 냄새나는 말이 나왔다. '꼰대'라고 비꼬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오냐오냐'라는 말도 듣기에 거북했다.

'오냐오냐하다'는 '어린이의 어리광이나 투정을 다 받아 주다'라는 뜻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청년을 오냐오냐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인식이 깔려 있다. 첫째 청년을 '어린이'로 생각하고 둘째 청년들의 의견을 '어리광이나 투정'으로 본다

것이다. 청년을 성인으로서 온전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다. 부족하기 때문에 키워야 하는 존재로 본다.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청년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성세대들이 많다.

'시골 청년은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말도 들었다. '나이브'라는 영어 단어에는 '순진해 빠진'이라는 경멸적 의미가 숨어 있다. 도시에서 고생해서 성장할 생각은 안 하고, 시골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청춘을 허비하려고 하느냐고 꾸짖는다.

그래도 지역의 좋은 선배나 선의로 해석해보자. 오냐오냐하면 과잉보호로 이어져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나약해질까 봐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온 세대다. 그 시대에는 직장 선배가 하늘같았고, 선배의 갈굼은 '사랑의 매'와 비슷한 것이었고, 고생하더라도 선배를 따라 잘 참고 배우면 성장한다고 믿고 살아왔다.

일터에서도 자신이 살았던 방식으로 청년들을 대한다. 그러니 6시에

칼퇴근하는 90년대생을 이해하지 못한다. '청년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청년에게 애정을 가지고 하는 말이라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어그러진 애정이다.

청년은 자식이 아니고, 기성세대들은 아버지가 아니다.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우리가 언제 오냐오냐 해달라고 했느냐"는 답이 돌아온다. 지역에서 만난 20대 청년들에게 '이 사회가 청년을 오냐오냐하는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니 "오냐오냐한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청년이 살아가기에 이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다"고 답한다.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방식으로 선불리 다른 존재를 판단하지 말자. 기성세대가 대신 답을 보여주기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했다. 청년들도 '노답' 같은 세상에서 답을 찾느라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있다. 그러니 제발 청년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응원해주자.

시나대숲의 새소리

나태주의 풀꽃편지



시인·풀꽃문학관장

봄이 와 요즘 며칠 문학관에 나가 꽃밭 일을 했다. 꽃밭 위에 덮여둔 검불을 거두고 낙엽을 치우고 마당 곳곳을 비질하는 일이다. 저녁 무렵까지 하는 날이 많았다.

일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연장을 챙기는데 어디선가 자그만 소리가 들렸다. 짹짹 짹짹. 새소리다. 그건 한두 마리가 내는 소리가 아주 여러 마리가 어울려 내는 소리였다.

어디서 우나? 둘러봤더니 문학관 뒤뜰에 있는 시나대숲에서 오는 소리였다. 손을 멈추고 바라보니 시나대숲 속에 푸스푸스 이리저리 새들이 나는 것이 보인다. 참새들이다.

아주 나지막하면서도 섬세한 소리. 가슴이 싸아해진다. 아, 저 소리!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 때부터 무던히도 들었던 소리다. 마음 속에 그리움 같은 것이 밀물져 온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이었지 싶다. 외할머니와 둘이서 남의 집 접방살이로 살고 있었다. 접방살이 하던 집은 완순네. 완순네 집 옆집은 가

장물 할머니네. 그 너머가 의용이네. 가장물 할머니네 집은 울타리도 없고 마당이 그대로 한길인 아주 초라한 집이지만 의용이네는 그래도 넉넉하게 사는 집이다. 의용이 아버지가 고무신 장사를 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그 의용네 집 뒤울안에 시나대숲이 있었다. 거기에 해가斜陽해지기만 하면 동네의 모든 참새들이 몰려와 잠자리를 챙기면서 울었다. 마치 시골 장날 사람들이 모여 떠드는 소리 같았다.

바라보면 의용이네 시나대 수풀 너머 서편 하늘로 질펀하게 노을이 지는 날이 많았다. 주황빛 노을 속에 조그맣게 몸을 흔드는 시나대숲과 참새들이 지절거리는 소리.

참새들은 해가 진 뒤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가마솥에 물을 끓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닷물이 몸을 뒤체는 소리 같기도 했다. 새들이 햇빛을 쬐아먹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가슴이 파스했다. 분명 시끄러운 소리였지만 하나도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았던 건 왜일까? 그 대신 편안함이랄까, 안도감 같은 느낌이 더 강했다. 참 그것은 이상한 일이다.

어쩌면 그 때의 기억과 느낌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다니! 오늘 나는 열살 미만의 어린이가 그대로 외할머니의 어린 손자가 된다. 사람의 정서적 기억이란 참 줄기가 길기도 하고 질기기도 한 모양이다.

첫삽 뜬 서천군 신청사, 새 희망이 되길

생생현장리포트



김 정 기
서천신문 편집국장

한다. 사실 서천군의 경우 갈수록 인구가 줄고 상권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충남도내 최고수준의 고품위를 떠나 서천역, 장항역 등의 역세권 개발도 상권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도심개발의 자체적인 엔진기능 또한 극히 노쇠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서천군민들의 오랜 염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천군 신청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는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위치 선정을 놓고 서천군은 수차례 주민 여론조사까지 실시했지만 서천읍 구도심의 공동화 우려와 찬반논란이 제기되며 서천군 신청사 건립은 매번 발발했다. 건물노후화와 주차장 부족이란 민원인들의 꾸준한 불만속에서도 10년 넘게 제자리만 맴돌았던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공론화과정을 거치며 '표를 잃을망정 더 이상 늦출수 없다'는 노박래 서천군수의 결단과 강한 추진력 아래 신청사는 마침내 지난 5일 첫 삽을 뜨기에 이르렀다.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이달초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파일공사에 돌입한 서천군 신청사는 향타기를 이용해 파일을 삽입하는 지정공사를 4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연면적 32,606㎡ 규모아래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신축되는 건립되는 서천군청사 바로 옆에는 119안전센터가 함께 들어서며 주거용지 총 49,245㎡, 단독주택 7,807㎡ 과 공동주택(587세대 규모), 준주거용지(11,071㎡)가 분양되고 녹지를 포함한 공원과 주차장, 녹지 등 기반시설 용지(86,431㎡)도 함께 들어선다고

그룹에도 이번 군청사 이전처럼 대다수 주민들의 막연한 도시개발에 거는 기대는 실령 잘못된 결과물이 만들어 질 지라도, 이미 물려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을 것이란 판단도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서천군청사 이전을 반대했던 주민들의 주장은 공동화문제에서 비롯된 위기의식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같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기존 청사 활용을 음성마을 건설이나 서천읍사무소 이전, 사회단체 사무실로 활용하지는 것은 너무 일반적이다.

아직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았다하지만 신청사 착공을 기점으로 기존 청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와 함께 서천읍 사거리 일대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과격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주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얻을만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지역상권의 공동화 대처를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기존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신청사 착공을 계기로 희망찬 서천, 행복한 군민을 위한 서천군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해 본다.



코로나19

충청남도 지원정책

중국과 거래하고 있다면 중소기업경영안정 자금

609억원 규모 | 1차 300 / 2차 309

2년 거치 일시상환 2.0% 이하보전 - 제조업 3억원 이내 / 기술혁신형 5억원 이내

대상 : 중국과 수출입 등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중점 : 중국 기업과 수출입 계약서, 조업정지 관련 자료, 수입신고증, 수출신고증 등 피해 입증 자료
* 기존 제조업 및 기술혁신형 경영안정 자금을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업체에 피해 증명되면 추가 지원 가능

신청 및 문의 : 충남 경제진흥원 / 제조업 중소기업-시군 지역경제과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제위축으로 힘들다면 소상공인 자금

350억원 규모 | 1차 200 / 2차 150

5천만원 한도 - 2년 거치 일시상환(2.0% 이하보전) / 보증수수료 0.5%

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 - 관광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 기존 소상공인 자금을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업체의 경우 지원한도 내 추가 지원 가능

신청 및 문의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신청 및 문의처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cepa.or.kr>

문의내용 : 기업육성자금(창업·경영력강화·혁신형·기업회생), 제조업(긴급), 경영안정자금

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영치면 은행나무길 223 TEL. 041-539-4543
남부지점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34 TEL. 041-881-5456

시군·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도는 경제과)

문의내용 : 기업회생 자금, 제조업(긴급) 경영안정자금

시군	부서명	문의전화	시군	부서명	문의전화
천안시	기업지원과	041-521-5460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67
공주시	지역경제과	041-840-8292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72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36	서천군	투자유치과	041-950-4233
아산시	기업지원과	041-530-6041	청양군	미래전략과	041-940-286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352	홍성군	경제과	041-630-1612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041-746-6042	예산군	경제과	041-339-7274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13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7
당진시	기업지원과	041-350-4064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문의내용 : 기술혁신형(긴급) 자금, 벤처·유망창업 자금, 사회적경제 자금

TEL 1588-6565
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45, 3층 충청영업본부
천안지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북부상공회의소 5층
아산지점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로 79, 유신빌딩 7층
보령지점 충청남도 보령시 번영로 25, 대림빌딩 6층
서산지점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1035, 오성빌딩 5층
당진지점 충청남도 당진시 방절로 160-13, 농협은행 3층

본부 TEL. 041-610-223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41, 2층
천안지점 TEL. 041-610-223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지원센터 8층
아산지점 TEL. 041-610-2231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장호빌딩 3층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cnsinbo.co.kr

문의내용 : 기술혁신형(긴급) 자금, 벤처·유망창업 자금

본부 041-530-3800
공주지점(부여) 041-580-9100
아산지점(예산) 041-830-3813
논산지점(계룡,금산) 041-730-0800

천안지점 041-559-3900
보령지점(서천,청양) 041-939-1900
서산지점(태안,홍성) 041-671-5555
당진지점 041-350-7500

물라서 혜택 못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경영극복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충청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609억 원을 비롯, △소상공인에 350억 원이 지원됩니다.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기업과 소상공인 동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적극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체의 지원 자격을 잘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정신문은 코로나19가 박멸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도민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정신문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우시다면 지금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Q 신청방법 / 고용장려금 문의처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http://www.ei.go.kr>)

청(지청)	관할지역	연락처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금산군	042)480-6212~13, 6015~21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공주시	041)851-8507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논산시,계룡시	041)731-8601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천안시, 당진시, 아산시, 예산군	041)620-7441~6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보령지청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홍성군, 청양군	041)930-6259, 6243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서산시, 태안군	041)661-5614

Q 고용촉진장려금

세부시책	지원내용	지원자격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월 40~80만원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 월 최대 40만원지원	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국내복귀 기업 지원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참고)1 월 60만원 - 중견기업 월 30만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 중견기업 월 40만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노동시장에서 취업취약계층(중증장애인, 성직자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

Q 고용안정장려금

세부시책	지원내용	지원자격
정규직전환 지원	- 전환된 근로자 1인당 - 임금증가액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불안정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위라벨일자리장려금 (구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단축 근로자 1인당 -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만원)·대규모기업(월 30만원)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코로나19'관련 시책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 간접노무비: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1주당 최대 10만원(연간 최대 520만원)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한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육아휴직 등 부여 간접노무비 지원 - 1인당 10~30만원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 및 그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Q 고용유지지원금

세부시책	지원내용	지원자격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관련 시책	- 휴업 - 사업주가 근로자 지급 휴업수당의 2/3 지원(대규모기업 1/2~2/3) - 휴직 - 사업주가 근로자 지급 휴직수당의 2/3 지원(대규모기업 1/2~2/3)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코로나19' 관련 시책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2/3 - 3/4, 그 외 기업 1/2 - 2/3 - 2/3)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근로자 평균임금 50%(1월 6.6만원)범위 내 지원금 결정 (최대 180일 한도 지원) * 심사위원회 결정 -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 -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주

Q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세부시책	지원내용	지원자격
청년내일 채용공제	- 2년형 - 청년 2년간 300만원, 정부 900만원, 기업 400만원 적립하여 1,600만원의 목돈 마련 - 3년형 - 청년 3년간 600만원, 정부 1,800만원, 기업 600만원 적립하여 3,000만원의 목돈 마련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만15~34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코로나19' 관련 시책	- 2년형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50만원 혜택) - 3년형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70만원 혜택)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60세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 지원기준을 초과 인건비 1인당 분기별 근로자 수의 20%까지 30만원 지원(대규모 기업은 10%)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업종별 지원기준을	고령자를 일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청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근로자를 청년이후주된일자리에서 고용유지하는 중소기업

Q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세부시책	지원내용	지원자격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월 평균 근무시간으로 산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45~120만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현원별기준으로 월 200만원 ~ 520만원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설치 소요비용의 60~90% 범위 내에서 한도액 3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억원, 교재구비는 5천원까지 무상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용자	-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비용 - 용자조건: 사업주당 10억원 한도, 용자금 1억원당 1명의 (준)고령자 신규 고용 조건(대출금리: 연 1%)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려는 사업주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용자 지원	-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10억원 한도로 증가근로자수 1인당 1억원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 투자비(설비투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등)	고대제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확대기업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상의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 지원 * 시스템 구축비(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려는 사업주



“106년 전통 당진초, 온 마을이 다함께 키우죠”

더 행복한 마을-
당진시 당진초등학교

당진향교에선 예절 체험
현대제철은 요리체험 참여
지역사회 시설 자원 활용
“마을 공동체 정착 밑거름”



당진초등학교는 1913년에 개교한 106년 전통 명문이다. 오랜 전통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학생들로 키워내는 일에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온 마을이 함께 마음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는 당진초는 2018년부터 2년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등 사회적 역량을 신장시켜 갈등 해결 역량과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힘을 길러내고 있다. 모든 학년이 연간 20차시의 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학생 중심 어울림 체험도 진행돼 왔다. 또한 ‘온(百: 濶: 全)빛 고전 읽기

6년 프로젝트’와 함께 독서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다중 문해력, 민주시민역량 신장뿐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적 소양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아침 인문 독서 활동, 주제 중심 인문독서 프로젝트 학습 주간 운영, 온빛 독서 공책 활용, 학년별 인문 기행, 작가와의 만남,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캠프 등 체험 위주로 운영해 왔다.
또한 2017학년도부터 3년 째 SW교육 선도학교인 당진초는 2017년 SW교육 전용교실을 구축하고, 2018년 스마트학습실 구축 등 정보융합 교육을 위한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했다.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도 펼치고 있다. 당진향교 연계 예절 체험학습, 당진도서관 체험학습을 비롯해 당진

수영장 생존수영 교육, 현대제철과 함께하는 요리실습 체험 등 지역사회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 명사 초청 교육,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방과 후 전통놀이교실, 다빈치심리상담센터와 함께하는 마음치유 상담,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하는 또래상담자 육성 교육 등 지역의 시설을 학교교육에 적용시키고 있다.
송하중 교장은 “모든 활동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온 마을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을교육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무/충남농어민신문
sambongsan8549@hanmail.net

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속집행 박차

청양·서산·논산 등 6곳 심의
예산 예산리 도시재생 추진
보령 대천동 4년간 277억 투입

충남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0년 제1회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양군 전략계획안 및 청양·보령·서산·논산·예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이 심의됐다.
청양군은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도시지역(596만㎡) 대상으로 활성화지역 3곳을 지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는 계획이다.
보령시는 대천동 일원(16만 7895㎡)에 4년간 277억 원을 투입, ▲남대천 어울림센터 ▲대천천 수변체육 공간조성 ▲마을호텔 프로젝트 ‘대천장’ 등 유유 부지를 활용한 공공시설 및 생활복지시설을 공급한다.
서산시는 읍내동 일원(10만 9000㎡)에 4년간 약 150억 원을 투입, ▲친환경 생활 SOC확충 ▲햇빛센터 ▲스마트 안심골목 ▲양유정 공원 공유마당 등 낡은 주거지를 정비한다.
논산시는 화지동 일원(20만 9360㎡)에 5년간 372억 원을 투입, ▲해월사 권·지역 활력 증진사업 ▲세대융합·공동체회복 사업 ▲주거 복지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강경읍 일원(14만9750㎡)에도 4년간 417억 원을 들여 주거지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 활용 재생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사업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한다.
예산군은 예산리 일원(1만1108㎡)에 4년간 약 300억 원을 투입,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동행커뮤니티센터 조성 ▲돌봄 문화종합센터 조성 ▲생활편의시설 조성 등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를 거친 4개 시군 5곳에 대하여는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본격적인 사업시행과 신속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건축도시과041-635-4660

80대 할머니 코로나 극복에 300만원

기초생활수급비 모아 저축
“심장병 수술 도움 받은 300만원
이번에 갚을 기회라 생각해”

【서산】서산의 한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가 생활비를 아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기탁해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석림동에 거주하는 80대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 할머니가 지난 4일 서산시청을 방문해 3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해 7월 공동모금회에서 심장병

수술을 위해 의료비 300만 원을 지원 받은 바 있는 김모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생활하는 어려운 형편에도 지원금 일부를 매월 저축해 300만 원을 모았다고 한다.
김 할머니는 “몸이 아파 심장병 수술을 받을 때 도움 받은 300만 원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조금씩 모아 왔는데, 이렇게 뜻깊게 사용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코로나19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시 제공

‘당진쌀’ 몽골 입맛을 사로잡다

40톤 수출·싱가포르 이어 두 번째
【당진】당진쌀이 몽골 수출길에 올랐다. 당진시에 따르면 5일 당진 (주)미소미 영농조합법인(대표 이태호)은 당진쌀 20톤의 무사고 항해와 현지에서의 인기판매를 기원하는 출고식을 고대면 소재 운동정미소에서 가졌다.
당진쌀이 올해 해외시장으로 수출된 것은 지난 1월 21일 싱가포르에 이어 이번이 벌써 두 차례로 수출물량은 40톤에 달한다.
당진쌀 전체 수출은 2019년 기준

156톤에 달하며, 이는 당진 농산물 수출 총 해외수출물량인 854톤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태호 대표는 “이번 몽골 수출 시 당진시와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내줘 원활한 수출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 시했다.
/당진시 제공

공주 이인면장, 면장실을 주민 품으로

주민 복지 상담실로 조성
업무는 1층으로 더 가까이

【공주】주민이 직접 뽑은 공주시 조성상 이인면장이 면장실을 주민 편의 시설로 전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통해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한 조 면장은 면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해 온 2층 면장실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이 공간은 그동안 사무실 없이 어렵게 운영해오던 이인면 주민자치위

원회 사무실과 복지상담실로 조성해 주민들을 위한 자치와 상담공간으로 활용된다.
대신 조 면장의 업무공간은 1층으로 옮겨졌으며 앞으로 면사무소를 찾는 주민들과 보다 열린 소통 공간에서 직접 대화하고 마을 현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성상 면장은 “주민들에 의해 추천된 면장으로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이인면의 발전과 면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민추천 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제공

“착한 임대료” 동참 합시다

논산시 연무읍 양남수씨
상가 임대료 20% 인하

【논산】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남수씨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신 소유 상가에 입주해 있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양남수씨는 “임대인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코로나19 극복에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남수씨 소유 건물(연무읍 동산리)에는 총 9명의 세입자가 영업을 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남수씨는 “임대인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코로나19 극복에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준석/논산포커스
qzwxl@naver.com

청양산 농특산물 TV홈쇼핑서 만난다

【청양】청양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공영홈쇼핑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됐다.
청양 6개 능가 공영홈쇼핑 SB 무료광고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SB 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사이사이 방영되는 짧은 광고를 뜻한다.
이번 광고 선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판로확보에 애를 태우던 농가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선정된 6농가 제품을 30초짜리 광고로 제작해 농가당 15회 정도를 무료 방영할 예정이다.
/청양군 제공



동학과 강점기 소실된 홍주읍성 복문 복원됐다

조선초 홍성군민 출입문 역할
역사문화도시 한 단계 발돋움
훼손심한 문루는 복원 못해



복원된 홍주읍성 복문 모습
재청 승인을 거쳐 지난해 7월 말부터 복원공사에 착수에 들어갔다.

[홍성] 홍성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홍주읍성 4개 성문 중 하나인 '복문' 복원공사가 발굴 4년 만에 완료됐다. 복문 복원은 홍성군이 역사·문화 도시로 발돋움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복원공사 규모는 복문지 동·서측 성벽 각 15m, 옹성 274m, 여장 18타로, 군은 지난 2016년 발굴조사에서 복문 성벽의 유구형태와 옹성 및 성문의 규모 등을 파악한 이후 설계용역과 문화

군은 일제 강점기 및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복문지 일대의 지대가 성문보다 높아져 자연배수가 불가하고, 일정한 지내력 확보도 불확실한 토질의 형상이 발견되는 등 홍주읍성 복문 복원공정이 녹록치 않았음을 밝혔다.

이에 군은 5차례의 문화재청 기술자문 회의와 지내력시험 및 지질조사,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를 밟 빠르게 이행해 장기간 중단될 수 있었던 복원공사를 조기에 완료한 것.

당초 복문의 문루까지 복원할 계획이었으나 끝내 문루와 등성계단의 복원이 제외됐다. 하수관로 및 통신시설 등 갖은 공사로 인한 유구의 훼손으로 문루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조석 및 적심의 양상 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군은 향후 복문지 문루복원을 위한 문화재청 설계승인 신청을 위해 복문과 형태와 규모가 유사한 서문의 발굴조사와 조석 및 주간(住間) 등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홍주읍성 복문은 조선 초기 축성 당시부터 출입문의 역할을 해왔으며, 축성 당시에는 문루 없이 옹성만 남아 있었다. 홍주읍성의 대대적인 보수가 진행되었던 1823년에 문루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문루는 1894년에 발생한 동학농민운동 당시 남문과 함께 소실되었다.

/도정신문팀

충남아산FC, 아산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품권으로 티켓 구매 가능해져
[아산]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이 아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하며 아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시즌권 및 티켓 구매가 가능해졌다.
아산사랑상품권이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아산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현재 1차로 100원대 10% 할

인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발행되었으며 관내 2천 600여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충남아산FC 이운중 대표이사는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아산 지역 경제와 함께 하는 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민철/온양신문
ionyang@hanmail.net



스마트팜으로 청양 딸기 재배 흥바람

귀농인 유만조 씨, 스마트 팜 농사
온도, 습도 등 관계센터 전달
전문지도사가 농장에 컨설팅



[청양] 농부가 된지 어느새 8년이다. 올해 병이 없어 다른 해보다 더 열렸고 그만큼 소득도 많이 올렸죠.”

청양군 화성면 농민1리 황금딸기농장 유만조 씨는 딸기농사로 흥바람이다. <사진>

청양산 딸기는 일교차가 큰 온도조건으로 당도가 높고, 새콤달콤 식감이 아삭해 소비자의 호응을 얻으면서 지역 고소득 유망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내에는 현재 10농가가 총 3.23ha 면적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다. 최소 0.2ha에서 최고 1.63ha까지의 시설하우스에서 맛 좋고 영양만점인 딸기를 생산해 내고 있는 것.

유만조 씨도 요즘 시설하우스 4동 약 0.5ha에서 딸기를 수확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품종은 우리나라가 2000년대 중반 일본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설향’이다. 월수, 금 일주일에 세 번 딸기를 출하한다. 작업하는 날이면 새벽 2시부터 일어나 2kg 상자에 알차게 채워 포장해 삼교 출하장까지 싣고 간다.

유 대표는 2012년 귀농해 2013년부터 딸기 농사를 시작했다. 초창기 5동에 딸기를 심었고 현재는 1동에 모목을 직접 키우고 4동에는 딸기 농사를 짓고 있다.

그는 부부에게 딱 맞는 딸기 농사 규모는 3~4동 정도라고 말한다. 보통 11월부터 시작해 6월까지의 거의 쉬는 날 없이 일해야 하지만 못 버틸

정도는 아니란다.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하고 잔일이 많은 단점은 있지만 해가 갈수록 수확량이 많아져요. 저도 8년째 딸기농사를 짓는데 열심히만 하면 연 1억 원 정도 매출은 되는 것 같아요”

이는 청양군농업기술센터가 ‘도마토·멜론·수박·딸기 등 과채류 시설하우스 영농환경 무선관계 농장 100농가 조성’을 목표로 진행 중인 ‘스마트팜 통합관계센터 구축사업’ 일환이다.

이 장치는 하우스 내부의 최저·최고온도, 현재온도, 상대습도, 이슬점온도, 수분증산량 등 환경정보 수집 장치의 LCD 패널을 이용한 실시간 정보 확인 장치다.

이 시설을 통해 측정된 데이터가 무선기지국을 거쳐 관계센터로 전달되면 관계센터에서 농장 모니터링 후 생육환경 분석 등 정보를 농장주에게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제공해주는 방법이다. 모아진 데이터를 보고 전문지도사가 농장에 컨설팅도 해 준다. 스마트 팜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이순금/청양신문사
ladysk@hanmail.net

천안 출신 임성재, PGA 우승

천안고 골프부 시절 타고난 근성
[천안] 천안 출신 프로골퍼 임성재(22·사진)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임 선수는 지난 2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 가든스의 PGA 내셔널 챔피언스 코스에서 열린 PGA 투어 혼다 클래식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3개를 슈아내며 4언더파 66타를 기록, 최종합계 6언더파 274타를 기록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는 2위 매켄지 휴즈(캐나다)와 단 1타 차이로 짜릿함을 더한다. 우승상금도 126만 달러(한화 약 15억2000만

원)에 이른다.
제주가 고향인 임 선수는 중학교 때 상경해 천안 계광중, 천안고교를 거쳐 현재 한국체대에 재학 중이다. CJ대한통운 소속으로 지난 시즌 아시아 선수 최초로 PGA 투어 신인왕을 받은 후 자신이 출전한 50번째, 정식 데뷔 이후로는 48번째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임 선수는 이번 우승으로 최경주(8승), 양용은(2승), 배상문(2승), 노승열(1승), 김시우(2승), 강성훈(1승)을 이어 한국인 7번째로 PGA 투어 우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9년 천안고에 골프부를 창

단한 김용기 감독은 “학창 시절의 임 프로는 타고난 소질은 물론이고 차분한 성격으로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하는 선수였다. 만족스런 성적이 안 나오면 울분을 터트리면서 바로 연습에 들어가는 근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조인욱/천안신문
icjn@hanmail.net



서천군 농기계 임대은행 휴일도 오픈

농기계 사용교육도 병행
[서천]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농번기를 맞아 6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은행 토요일과 공휴일 운영을 실시한다.

군은 영농철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 임대은행의 토요일, 공휴일 운영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은행은 65종 320대의 농

업 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봄 3월~6월, 가을 9월~11월 농번기에 토요일과 공휴일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성일 농업기계지원팀장은 “작기에 영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천군 제공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탄력

2000억 규모 주민 숙원사업
민간사업자와 협약...올12월 착공
[천안] 천안시는 악취 발생으로 시민 불편을 겪어온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천안앤바이로(주)로 정해지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

자사업은 2016년 최초제안서접수를 시작으로 적격성조사와 제3차 제안공고와 협상을 거쳐 이달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 의결을 받았다.
이 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 하수찌꺼기 감량을 위해 총사업비 1969억원 규모로 시설을 현대화한다.
노후한 1단계 시설 철거 후 1일 처리용량 7만㎥ 규모로 신설되며, 2단계

는 1일 8만㎥를 향후 5단계는 2만3000㎥ 규모의 하수찌꺼기감량화시설이 조성된다. 천안시는 올 연말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용초 천안시 하수시설과장은 “노후된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악취 민원 해결은 물론 추가로 발생하는 여유부지에 주민편의 시설 설치가 가능해 오히려 하수처리장을 찾는 시민이 많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제공

아산시, 야외 관광지 드론방역 외암민속마을, 은행나무길 소독

[아산] 아산시가 코로나 19로 인한 시·군간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이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 차원에서 지난 9일 충남도와 함께 드론 방역을 실시했다.
이는 선문드론교육원의 재능기부로 주요 야외 관광지인 외암민속마을과 은행나무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코로나19 드론 방역은 무인항공장치에 방역소독장치를 달아 소독약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역원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소독할 수 있어 야외 지역을 대상으로 단시간에 효율적인 방역효과를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의 다양한 감염확산 방지로 코로나 19 대응력을 높임과 동시에 안전한 관광도시 아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 제공



어르신 웃음 싣고 노인대학으로 씩씩

차량운행 도우미 유재혁 씨
활짝 웃음 어르신 보면서 보람



3월부터 11월까지 노인대학이 운영되는 매주 화요일은 재혁 씨(45·사진)의 아침이 분주하다.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송악의 이주단지, 복운3리, 오곡리, 월곡리, 한진리를 들러 80~100여명의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기 때문이다.

한번 뿐이지만 노인대학을 가는 날에는 재잘거리며 활짝 피는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재혁 씨는 큰 보람을 느낀다.

재혁 씨는 당진 송악에서 엘림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다. 지난 12년 동안은 서산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를 했고 2018년에 고향인 당진으로 돌아와 주간보호센터를 준비했다.

“어르신의 평균 연령대가 80대이신데 닥에 홀로 계시면서 적적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은 노인대학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맥으로 모셔다 드리면 그날만큼

어르신들과 차량운행봉사의 시작은 우연히 자원봉사를 알아보다가 교통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운전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주일

은 얼굴이 참 밝으시더라고요.”

재혁 씨의 차량운행 자원봉사는 주변에서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 있어 무리 없이 해올 수 있었다고 한다. 혼자 100여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또 모셔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노인대학이 운영되는 날에는 재혁 씨를 포함해 2명의 운전사가 더 있다.

“사실 제가 운행하는 12인승 차량도 교회에서 빌려주셔서 운행하고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든든하게 해오고 있죠”

앞으로 그의 바람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요양시설로까지 확대해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이다. 어르신들의 웃음을 싣고 3월 신나고 안전하게 달리겠습니다.

배길령/당진신문
skyseaone@naver.com

유관순 열사가 인생 롤모델

홍성여고 이현정 학생
제19회 ‘유관순 햇빛상’



알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관순햇빛상 위크숍’은 이 양에게 작지 않은 변화를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와 이화여고,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관하는 제19회 유관순햇빛상 수상자에 18세 홍성여고 2학년인 이현정(사진) 학생이 선정됐다.

올해는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이다. 이현정 학생의 나이는 유 열사가 순국할 때 나이와 같다. ‘유관순 햇빛상’은 유 열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같은 또래 여학생들에게 심어주고자 지난 2002년 10월 마련한 것으로, 전국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여고생을 수상후보로 추천받아 선발·시상하고 있다.

이번 위크숍에 참가한 36명 가운데 21명이 선정됐고, ‘이현정’이라는 이름도 선정자 명단에 올랐다.

“답답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셔서 참가하게 됐어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지난 1월에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회 부회장으로 활동 경험과 함께 학내에서 청소년 문화활동, 그리고 지난해 여름 중국청산리역사대장정에 참여한 경험 등을 담임선생님께서 높게 평가주셔서 위크숍에 참가하게 됐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쁩니다.”

이 양은 상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위크숍이 주로 ‘글쓰기’와 ‘토론’ 위주로 진행된다는 것을

불러 온 듯 했다.

“기회가 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위크숍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확실히 무언가는 얻어갈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이 양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친구들과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역사연구 동아리 활동이 그것이다.

“유 열사는 부정할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앞장서 용기 있게 해결하려 했던 여성 리더였습니다. 제가 열사에게서 본받고 싶은 점 중 하나예요. 제가 학생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영향력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심분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기가 새로 시작되면 학생들과 함께 ‘동북공정’에 관한 역사공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불의한 역사왜곡에 당당히 맞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유 열사의 정신을 제 나름대로 계승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김경미/홍주신문
rlarudal4767@daum.net

자전거 여행 1840km, 한 권의 책으로 엮다

홍성 출신 KBS 신경섭 PD
국토완주 그랜드슬램 달성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포항(개목)이 고향인 출향인사 KBS 신경섭(사진) PD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국토완주 그랜드슬램(전국 12개 코스 자전거길 1840km)’ 3회 달성과 동·서·남해안을 자전거로 일주한 여정을 정리한 책 ‘길을 가다가 때로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사진)를 발간했다.

나라 곳곳의 아름다움을 자전거로 두루 섭렵했다. 또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72차례나 뛰며 국토의 아름다움을 눈과 마음에 담아냈다는 평가다. 이 책에는 아라자전거 길부터 낙동강~섬진강~제주 환상자전거 길에 이르기까지 발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달려본 국토종주 자전거 길을 생생히 전하고 있으며, 동서남북 구석구석 완성되지 않은 구간까지의 코스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저자 신경섭은 방송국 프로듀서(PD)라기보다는 차라리 철인 3종 경기 선수에 가깝다. 국내 마라톤대회에 72차례나 완주했고, 매일 아침 자전거와 달리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다. 현직 KBS PD인 저자가 자전거로 둘러본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체험! 삶의 현장’, ‘VJ특공대’, ‘무한지대 큐’, ‘영상앨범 산’, ‘생생정보’ 등 무수한 프로그램을 연출하면서 접하게 된 우리

인생이라는 긴 여행 속에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다보며 그곳에서 만난 자연과 아름다운 금수강산, 역사와 문화는 물론 사람들의 사람냄새가 나는 다정스런 이야기까지 고스란히 담았

다. 신 PD는 “정년을 앞두고 5년 동안 인생의 버킷리스트라 할 수 있는 자전거 여행을 통해 국토종주 4회, 4대강종주 3회, 국토완주 그랜드슬램 3회까지 달성했다”며 “회갑을 살아가면서 60년의 인생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자전거로 국토를 순례하면서 지도 사용법,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법, 자전거 핸들 파지와 브레이크 잡는 법, 주요 역과 터미널에 대한 정보도 친절하게 소개해 자전거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길라잡이 역할도 하고 있다.

학생지질, 광천에서 공부를 꽤나 잘했던 신경섭 PD는 어느덧 환갑을 넘겨 흰 머리칼로 변했지만 ‘한 번 PD는 영원한 PD’라는 말로 변치 않는 열정을 안고 아름다운 PD로 영원히 남고 싶다”고 밝혔다. 오늘도 인생의 건강페달을 밟으며 달리고 있다.

한관우/홍주신문
uytn24@hanmail.net

자주 만나 대화하니 묵은 갈등도 ‘술술’

주민자치1번지 -삼교읍 창정리
체육대회 등 잦은 행사로 화합
작은 영화관·공부방 등 호응



예산군 삼교읍과 덕산면 경계에 위치한 창정리는 남북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마을이다. 한 동네인데도 6·25때 피난민이 이주한 윗뜸(윗마을)과 창정리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이 대부분인 아래뜸(아랫마을)으로 갈라져 있어 오랜 세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이 있어 왔다. 마치 남북 분단의 축소판처럼 갈라져 있던 마을은 청년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다시 하나가 됐다.

살리기는 마을 어르신들의 공감을 얻으며 더욱 활성화 됐다. 노인들은 노인회를 조직해 마을간길 청소를 하는 등 마을가꾸기에도 앞장서기 시작했다.

먼저 피난민과 원주민 간 세시풍습의 차이를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어버이날 행사, 마을단합체육대회, 대동회, 정월대보름 행사 등 각종 마을 행사를 개최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의 기회를 늘려간 것이다. <사진> 청년회가 주도한 전통 세시풍습 되

부녀회도 오카리나 동아리 등 자생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잠시나마 영농에 지친 심신을 달랬다. 특히 2017년에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노래교실을 진행,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창정리는 청년회를 중심으로 청년농업인들의 꿈을 일깨우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농업을 위해 뽕병을 조성하는 한편 마을농·배수로를 정비, 깨끗한 물이 하천

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미꾸라지 등 논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방생하는 등 생태계 복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는 인근에 위치한 내포신도시와의 상생을 위해 주말농장과 직거래장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빼놓을 수 없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함께 어울리며 공부할 수 있는 ‘사랑방’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말에는 ‘작은 영화관’도 운영해 주민 모두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간다는 포부다.

청년회 관계자는 “우리 마을은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이 청년을 믿어주고 청년들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다”며 “지금까지처럼 주민 화합을 바탕으로 마을 비라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동 khd1226@korea.kr

우리 행복의 근원은 무엇일까?



사서들의 서재



<김초엽, 허블(2019. 6.)>

있다. 처음엔 그의 이야기가 낯설거나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작가의 이야기와 간결한 문장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7가지 이야기 중에서 필자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인 「관내분실」 편에서는 미래 도서관의 개념과 사서가 등장한다. 바로 인간의 생애정보를 데이터로 변환하여 보존하는 ‘마인드’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사람의 사고방식이자 정체성인 ‘마인드’를 보관하고 사서는 가족들에게 도서관에 저장된 ‘마인드’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마인드’를 통해 망자와 조우하거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인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덱스와 색인이 필요한데, 도서관시스템에서 특정 마인드에 대한 인덱스와 색인이 누군가에 의해 삭제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시스템 어딘가에 존재하지만 접근할 수 없는 미아가 되어버린 ‘마인드’를 통해 현실속의 인간들 역시 그 존재성을 찾을 수 있는 인덱스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반문한다.

이 책은 김초엽 작가가 기 발표한 7가지의 중·단편 소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어서 발간한 책이다. 그는 SF소설을 통해서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세계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미래를 독창적인 관점과 감성으로 그려낸다. 모든 생명에게 부여된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권, 차별, 양극화 등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문제들은 단지 과학기술 자체의 발달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고 7개의 이야기(“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스펙트럼”, “공생 가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감정의 물성”, “관내분실”,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보다는 독자에게 전달하고



신배재
충남도서관 사서

우리지역 일꾼을 만나다

충남도의회는 각 지역을 대표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지역의 일꾼들이다. 충남 도정신문은 제11대 도의회 42명의 도의원을 차례대로 소개한다. 각자 주력하고 있는 정책과 각오 등에 대해 들어봤다.

“차별과 세상 앞에 당당하자”

정병기 의원(천안3)

척수장애인으로 편견 해소 노력

장애인 콜택시 제도 개선 결실



문화예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사실상 천편일률적인 강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화 예술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정신적인 양식인 만큼 지역적 차이로 인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충남은 지역 특성상 다양한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변방이다. 대도시와 차별 없이 도민 모두가 문화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를 통한 문화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은=“천안 원도심인 봉명동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약 7300㎡ 규모의 장항선 철로 하부 공간 부지를 철도 관련 창업과 문화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순천향대학교부설 천안병원의 증축 공사에 따라 대규모 상업·거주 시설이 봉명지구 재생사업과 연계돼 진행된다. 뉴딜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마을, 마을 기업육성을 위한 봉명 씨알 공동체 센터 조성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봉명동을 만들어내도록 힘쓰겠다. 아울러 개발에서 도태돼 일봉동과 성정 1·2동 주민의 상실감이 큰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나=“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 왔다. 지역적 한계를 보였던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장애인 콜택시는 시군 간 경계를 넘나들지 못하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제약이 많았다. 예를 들어 천안에서 사는 장애인이 충남 도청을 방문하기 위해선 천안과 아산, 아산과 예산 경계까지 택시를 두 번이나 바꿔 타야만 했다. 고속버스의 경우 이용하기 불편할 뿐더러 철도나 전철의 경우 노선 등에 따라 지역적인 한계가 명확했다. 11대 의회에 입문하면 서부터 도정질문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광역화를 적극 주장하며 노력했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높여 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지난해 말 문을 열게 됐다. 출범 초기다 보니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후속대책을 마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쏟겠다.”

역점 추진 과제는=“기관·단체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로의 전환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 대부분은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다.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나아가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 각자에 맞는 방문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 주민센터 문화지원 사업도 확대코자 한다. 주민센터는 영화관으로, 때로는 연극 공연장, 문화교실, 취미교실을 개최해 지역

“체육 진흥·백제문화제 발전 앞장”

최훈 의원(공주2)

전문체육인 출신으로 개선 노력

부여·공부 백제문화제 활성화 고심



전문체육인으로서 체육계 개선에 주력해 왔는데=“대학 때까지 유도 선수로 활동한 전문체육인으로서 체육인에 대한 처우 개선과 체육을 통한 복지 확충에 매진해 왔다. 체육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에 개인의 건강 문제나 단순한 신체활동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 기여하는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민이 많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확대를 위해 경비지원 대상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어느 한 사람도 체육활동에 있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활발한 체육활동은 지역공동체로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다.”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전문·생활 체육단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두 체육단체가 합쳐진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두 기구 간 마찰이 생기고 있다. 톱니바퀴처럼 각 단체들이 제 위치에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며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문체육인에 대한 처우도 개선코자 한다. 그동안 생활체육은 여러 가지 정책이 마련되고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반면 전문체육인에 대한 조례나 정책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실업팀에 소속된 선수들의 계약기간이 매우 짧는데, 이 부분을 보완할 별다른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선수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할 계획이다.”

시급한 지역 현안이 있다면=“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축제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백제문화제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콘텐츠 부족, 관광객 유인력 미흡 등의 문제를 꾸준히 지적받고 있다.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박물관과 전시공연장 입장료 할인 혜택, 운영시간 연장 등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은 유지할 수 있다면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이 주도하는 추진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도 시급하다. 공주는 무령왕릉과 송산리 고분군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유국인 국내 대표적 역사문화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주민소득과 제대로 연계돼 있지 않아 도시의 쇠퇴를 불러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백제문화의 중심인 공주의 문화와 예술, 관광산업을 연계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복안이다. 아울러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해 공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주변을 정비해 젊고 활력있는 도시로 바꿔보고자 한다.”

의원서론

자랑스러운 충청인의 승리



조승만 의원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규정이 국회 본회의까지 어렵사리 통과하게 된 것은 서명운동에 참여한 180만 충남도민과 대전 시민, 여야 정치인, 양승조 도지사, 유병국 의장과 도의원, 법 도민단체, 관계공무원,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 의장, 세종시의회 의장, 시장군수 시군의원 등이 함께 한 결과이며 자랑스런 충청인의 승리이다.

2018년 내포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논리적 접근으로 지역구 도의원으로 혁신도시 지정 촉구건의문을 작성, 42명의 도의원 대표로 발의하고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하여 청와대, 총리실, 중앙부처 장관에게 보내어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했고 2019년 3월 임시회 혁신도시 지정 도정 질문시 충남혁신도시는 충남도가 전도민이 서명운동을 펼쳐 범도민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가장 많은 도정질의와 5분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충남도는 2019년 4월 1일부터 각 시군에서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범도민 추진기구도 발족하기도 했다. 그 결과 충남도민, 대전시민의 여망을 담은 180만명의 서명을 달성, 대통령과 국무총리실, 국회, 중앙부처 장관에게 전달하고 이에 힘입어 지난 11월 28일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 산자위 소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순조로운 듯 했으나 일부 대구·경북 의원들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규정법 통과 저지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되어 양승조 도지사의 규탄성명과 함께 충남도의회에서도 317회 2월 임시회시 지역구 도의원으로 저지에 대한 차단과 함께 충남·대전혁신도시 지정을 갈망하는 충청인의 여망과 단결된 충청인의 기개와 경각심을 알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작성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실,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 정의당 등 정당대표, 대구경북 국회의원에 통보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규정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 국토부에 지정 신청하여 절차에 의거 혁신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규정법 통과를 모든 충청인의 단합된 노력의 귀한 산물이다.

국가균형 발전차원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혁신도시 지정 신청은 이제 충남도의 몫으로서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서 도청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어 도민을 위한 더 행복한 충남, 도민이 더 살기 좋은 복지수도 충남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택시업계 고통, 도에서 함께 분담해야



안장현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버스 등 운송업계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줄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확진자들의 택시 이용 동선이 발표될 때마다 택시 이용이 급격하게 줄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수입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상 명확한 기준이 없다.

하루 10시간 넘게 택시를 운행해도 손님을 태우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노사 합의로 정한 기본급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시간 노동과, 밤낮 맞교대 근무 특성으로 인해 택시기사들의 과로 사망률이 전체 노동자 평균치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충청남도에서는 예방과 방역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지원이나 외식·관광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 이제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택시업계는 타다 소송건과 대리운전업계의 성장 등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코로나19 확산세로 업계 전체가 도미노처럼 영업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넘어 이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긴급 추경편성으로 코로나19 피해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택시운전자들의 기본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택시 운전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도와 택시업계 사측이 함께 머리를 맞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고통을 일부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시행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 100원 택시운행처럼 택시이용 수 밖에 없어 노동자는 물론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2 설향’ 육성 기반 만든다



충남도의회가 도내에서 탄생한 우리나라 대표 딸기 품종인 ‘설향’ 신화를 잇기 위해 지역특화 작목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김득응 의원(천안1)이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품종을 개발·육성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역특화작목의 효율적 연구개발 및 육성, 기술 이전, 사업화 수행 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지역특화작목 발전협회에 대한 운영사항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의 지역전략작목 육성기반 조성사업 중 성공적 개발사례로 꼽히는 충남 딸기연구소의 ‘설향’ 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작목을 발굴·육성해야 한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특화작목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복지·반려동물 보호 대책 마련



충남도의회가 유기동물 보호에 한정된 동물보호정책 범위를 동물복지와 반려동물까지 포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옥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 수립(5년 단위)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공포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등록된 반려동물 7만 5000여 마리(2019년 12월 기준)에 대한 보호와 복지 수준은 물론 맹견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가구 중 30%인 574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내 가구 비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추진



충남도의회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양경봉 의원(서천2)이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접수방법과 1인당 포상금 지급금액 한도(연 300만 원), 2명 이상 공동 신고시 균등 분할 지급, 다른 포상금과 중복 지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환경오염행위는 자연생태를 파괴하고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심코 하는 행동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도민 모두가 참여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적 생활습관을 갖게 된다면 후손에게 아름다운 생태계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황영란 의원(비례)이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2007년 제정된 이후 장애등급제 폐지 등 복지 정책 변화에 따른 상위법령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에는 시설외장애인 등에 대한 도지사 지원사항으로 ▲자립생활체험휴양 운영 ▲자립생활주택 운영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등이 추가됐다.

또한 장애 정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이 신설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황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시설의 집단 감염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이제라도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시설 격리를 통한 고립이 아닌 지역사회 정착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치 폐농약 체계적 관리 도입



김명숙 의원(청양)이 최근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 조례안은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처리 절차를 제도화해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폐농약류 수거 체계와 시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또 시장·군수와 협의를 통해 폐농약류 수거함을 제작·보급이 가능해지며 농업협동조합장과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에게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적정한 수거·처리, 시책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폐농약류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PLS 기준에 맞는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사용 후 남은 농약의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과 도민의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 넓힌다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김한태 의원(보령1)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 범위와 지원 규모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내 66세 이상 노인 인구 38만 9304명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인 8385명이 보행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등급 외 판정자에게도 성인용 보행기 지원 길을 열어줌으로써 보행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추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충남 농어촌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지정근 의원(천안9)이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 LPG사용실태와 위험성 저감방안’ 연구과제 분과위원으로 적극 참여한 지 의원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연구과제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분과별로 추진한 입법정책연구구역 중 입법화에 나선 첫 번째 성과물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LPG공급시설 지원 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지원 대상마을 선정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관학 협력으로 교육진흥 실현”



도의회는 김동일 의원(교육위원회·공주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교육청과 지역 대학이 인·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은 대학과 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원 수업 전문성 개발·연구 ▲교육실습 등 교원양성과정 협력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관학협력 대상과 예산 지원 ▲협력 사업 평가 등의 분야에서 상호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교육청과 대학 간 협력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관학협력 사업을 통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충남 교육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기 위해 사립에 한정했던 박물관과 미술관 지원 범위를 도 전체로 대폭 넓힌다.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천안7)이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명에서 ‘사립’이란 단어를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 소장 유물의 보존·관리 사항, 문화 소외계층 이용확대 프로그램 지원 등 육성·지원시책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책임감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이 활성화 되어 다양한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도민의 이용 기회가 늘어날 바란다”고 말했다.

드론산업 육성 저변 확대 나서



충남도의회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방한일 의원(예산1)이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장려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또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을 위해 드론산업 육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의원은 “드론은 항공 촬영, 군사용, 산불 감시, 시설물 안전 진단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도 폭 넓게 쓰이는 등 활용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충남에서 이미 농업 분야에서 드론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근거 추진



충남도의회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시군 경계지역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홍기후 의원(당진1)이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군 경계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지원 사업에서 소외받지 않고 균등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군 경계지역 주민은 각종 지역개발 또는 주민소득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도지사에게 균형발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군수에게 해당 사항 처리를 권고해야 하며, 재정 등의 사유로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협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청 ‘한글사용 책임관제’ 도입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을 위한 ‘한글사용 책임관’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경수 의원(교육위원회·서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올바른 한글 사용과 국어문화 발전을 위해 교육감이 관련 업무를 총괄할 한글사용 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올바른 한글사용 실태와 정책 등의 명칭을 2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공문서 등의 작성 원칙도 담았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춰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우리말로 작성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및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토록 했다.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상황실 위문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6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애쓰고 있는 충남 비상방역대책단 천안사무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김득웅·한영신·정병기·이공휘·오인철·김연·김은나·지정근 등 천안 지역 도의원들은 감염병 대응 상황과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앞서 유병국 의장과 이종화 제2부회장은 지난 4일 도청 내 위치한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상황실을 위문했다. 유 의장과 이 부회장은 이날 감염병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방역활동에 고군분투하는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균특법 통과...도민이 해냈다”

도의회, 균특법 개정안 통과 환영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인 유 의장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충남 혁신도시 지정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220만 도민의 하나 된 열정이 모인 결정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충남과 대전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온갖 손실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한 남은 절차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장은 지난해 8월 출범한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민간 기구인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참여해 회원들과 백민인 서명운동 등 혁신도시 지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도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결의안 채택과 국회 방문, 특별위원회와 연구모임을 통한 공론화 작업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씩 없이 대변해 왔다.

‘코로나19 대응’ 임시회 단축

당초 11일에서 총 3일로

충남도의회가 코로나19 국내 확산에 따른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도)는 비회기 기간인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었으

나 이날 회의를 통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축소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1·12일 양일간 예정됐던 도정·교육행정 질문은 취소되며 민생과 직결되거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만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말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임시회 의사일정 연기·단축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살기 좋은 건강도시 충남 조성 앞장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기회 및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체계



이종화 의원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건강도시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건강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물론 도민들이 쾌적한 도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 식생활 건강 지킨다”

충남도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충청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 대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제 운영에 따른 요청인 보호조항과 함께 식품안전관리 계획수립·시행, 식품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와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의회가 꿈꾸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행복**입니다.

의회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